

21일 Market Index	
코스피 6388.47 (+169.38)	코스닥 1179.03 (+4.18)
금리 (연이자율) 3.330 (-0.018)	환율 (원/달러) 1470.50 (-6.70)

# metro 경제

하정우  
靑 시미래기획수석  
인터뷰  
06



## ‘증시 활황’ 210조 은행자금, 증권사 갈아탔다

(지난 1년간)

은행 요구불잔액 3주새 19조 급감  
IMA 등에 최대 170조 유입 전망

코스피가 63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활황을 잇자 은행 예·적금에 머물던 자금이 증권사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본격화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요구불예금잔액은 680조92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과 비교하면 18조9845억원이 급감한 수치다.

시중 통화량 증가폭도 제자리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2026년 2월 통화 및 유동성’을 보면 지난 2월 한국의 M2(광의 통화)는 6000억원 늘어난 4114조원으로 전월 4113조4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요구불 예금(-2조9000억

원), 2년 미만 정기 예·적금(-1조8000억원) 등이 줄면서 전체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 같은 증가 둔화는 증시로의 자금 이동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신용평가(한신평)의 ‘K-IB(기업금융) 2.0 머니무브 속 중투사의 현주소’를 보면 올해 2월 말 기준 주식형 펀드와 증권사 투자자예탁금은 399조원이다. 지난 1년 사이 증권업계로 210조원 뭉치돈이 옮겨간 것이다. 주식시장 호황과 발행어음·IMA 열풍이 맞물린 결과다.

시장에서는 최대 170조원의 자금이 발행어음과 IMA 등 증시 주변으로 향할 수 있다고 본다. 대형증권사(종투사)는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으면 지정된다. 4조원 이상이면 발행어음, 8조원 이상이면 IMA 업무가 가능하다. 발행어음

은 현재 7개사로 확대됐고 잔고는 51조원을 넘어섰다. IMA도 지난해 12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이 출시한 데 이어 올 3월 NH증권까지 가세했다.

IMA는 출시 직후부터 ‘오픈런’ 양상을 보였다. NH투자증권이 지난 6일 출시한 1호 IMA 상품 ‘N2 IMA1 중기형 1호’는 총 4000억원 규모가 모두 판매됐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각각 모집한 4호, 2호 IMA 상품도 모두 목표 설정액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1호 IMA 상품 경쟁률이 5대 1에 달했고, 2호 상품도 모집 3일 중 이를 만에 조기 완판됐다. 3월말 기준 IMA잔액은 2조8000억원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 한도로, 증권사 한 곳이 IMA까지 합쳐 자기자본

의 최대 300%까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를 근거로 증권사의 발행어음·IMA 통합 전체 한도를 139조7000억원으로 추산한다. 현재 발행잔액(53조4000억원)을 제외한 추가 조달 여력도 86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인수진 나신평 책임연구원은 “삼성·메리츠증권까지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170조원대 시장이 된다”고 전망했다.

김예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며, 가계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가계 자산의 약 80%는 부동산과 예금에 집중돼 있다. 자본시장비중은 10%가 채 안 된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현지 시간) 뉴델리 영빈관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뉴스스

### 조선·AI·방산 넘어 외교 등 전방위 협력

李 대통령, 인도 정상회담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21일 인도 국민 방문을 계기로 조선·인공지능(AI)·방산 등 전략산업 분야뿐 아니라 외교·안보를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또 한국과 인도는 산업협력위원회 신설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가속화 등을 통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중동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서도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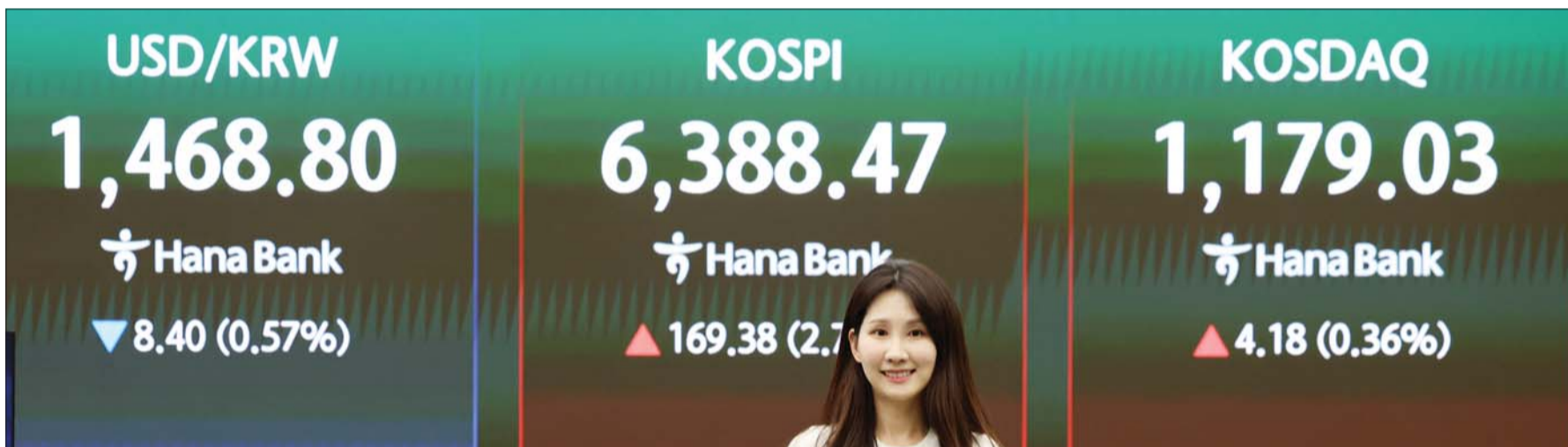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0일) 인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AI, 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 광물, 원전,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최근 중동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무역장벽과 규제도 신속히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협력 MOU(양해각서)’를 개정해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과 인도 규제 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 대기업 중심의 인도 진출이 아니라, ‘제2의 코리안웨이브’를 중소기업이 주도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반’ 설치도 약속했다.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인도 총리실이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인도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해양이니셔티브(IPOI)’ 참여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83.45포인트(1.34%) 상승한 6302.54에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4.8원 하락한 1472.4원으로, 코스닥지수는 11.38포인트(0.97%) 오른 1186.23에 거래를 시작했다. /뉴스스

## ‘6388’ 하늘 뚫은 코스피

외국인 매도… 추가 상승 핵심 변수  
하이닉스 ‘신고가’, 삼성전자 상승세

코스피가 다시 6300선을 뚫으며 ‘불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외국인인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고 있다. 외국인 수급은 향후 코스피 추가 상승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9.38포인트(2.72%) 오른 6388.47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월 26일 6307.27까지 치솟았던 코스피는 중동 전쟁이 터지자 3월 3일부터 연이틀 7%, 12% 넘게 폭락한 후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지난달 31일에는 5052.46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약 두 달여 만에 6300을 재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었다. SK하이닉스는 전날보다 4.97% 오른 122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중 122만8000원까지 올라 이를 연속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도 2.10% 올라 21만9000원을 기록했다.

시장은 코스피의 ‘강세장 2막’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7000에서 8000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티모시 모아시아태평양 수석 주식 전략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국내 반도체와 산업재 전반에서 펀더멘털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목표치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AI의 전망치를 대폭 끌어올린 점이 이번 조정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코스피 선행 주가수익비율(P/E)은 약 7.5배 수준으로, 과거 시장 고점 당시 중간값인 10배와 비교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3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 ‘통화·정책·소통’ 중앙은행 재설계 시험대

한국은행 신현송 號 출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21일 공식 취임함에 따라 첫 과제는 금리만으로 풀기 어려워진 ‘복합 충격’ 관리가 될 전망이다.

신 총재는 첫날부터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정책 유효성 제고, 양방향 소통, 금융안정의 새 틀을 한꺼번에 꺼내 들었다. ‘신현송호’가 출범과 동시에 ‘금리의 방향’보다 ‘중앙은행 역할의 재설계’를 먼저 시험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금리보다 ‘정책 유효성’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 총재는 이날 취임사에서 “중동전쟁 이후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상방압력과 경기하방압력이 동시에 커졌고,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정학 갈등과 인공지능(AI) 기술 혁명, 통상 갈등 재편, 인구구조 변화와 부동산·가계부채문제까지 겹친 만큼 중앙은행의 역할을 다시 물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내놨다.

신 총재가 첫날 내놓은 해법의 출발점은 금리 방향 자체보다 통화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조건을 다시 손보는 데 가깝다.

그는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충격으로 물가와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만큼,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정부, 지자체에 “고유가 지원금 현금화 등 부정 유통 안돼” /사진 뉴스스  
▲외교부 “중동 상황, 亞太 에너지·공급망 등 영향…역내 협력 중요”

▲김 총리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고유가 피해 지원 등 신속 집행”  
▲與, ‘정동영 사퇴 촉구’ 국힘에 “지선용 자해 안 보팔이 장사, 도 넘어”

▲국힘 “李, 정동영 발언 ‘문제없다’ 방어막…즉각 경질해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與, 3~4인 선거구 공천 철회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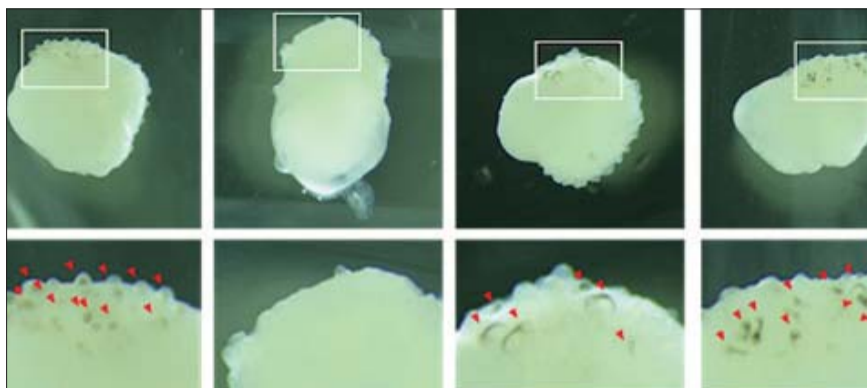
# 오가노이드 기술로 탈모 재현... 차세대 신약개발 길 열렸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코스맥스  
탈모 치료효능 평가 플랫폼 개발  
연구개발·상업화 가능성 동시 확보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코스맥스가 전분화능 줄기세포 기반 '모발 오가노이드(hair organoid)' 기술을 활용해 남성형 탈모를 실험실 환경에서 재현하고 치료 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공동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연구 내용은 피부과학 분야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피부과학 저널(Journal of Dermatological Science)에 게재됐다.

오가노이드 기술이 탈모 영역에 적용된 세계 최초 수준의 사례다. 이 플랫폼은 탈모 치료제와 기능성 화장품 소재의 효능을 동물실험 없이 인간 세포 수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다. 신약 개발사는 물론 화장품 기업에도 즉시 제공 가능한 서비스형 플랫폼(platform-as-a-service)으로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오가노이드(organoid)는 환자나 공여자의 줄기세포를 채취해 3차원으로 배양한 미니 장기다. 이번에 개발된 모발 오가노이드는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모발 오가노이드 기반 탈모 재현 및 치료 효과 분석 이미지. 빨간색 화살표는 오가노이드에서 만들어진 모발을 가리키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100일 이상 장기 배양해 실제 모낭 구조를 포함한 3차원 조직체를 표준화한 것이다.

기존 탈모 연구는 배양된 단일 세포나 동물 모델에 의존해왔다. 두 방식 모두 실제 사람 두피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정확히 재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플랫폼은 모발의 생성·성장·퇴행이라는 주기 전체를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접근이다. 신생아 피부부터 노화에 이르기까지 실제 두피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손바닥만 한 실험 접시 위에서 재현된다.

연구팀은 남성형 탈모의 주요 원인 물질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

T·남성호르몬의 활성형)을 오가노이드에 처리해 탈모 환경을 인위적으로 구현했다. 그 결과 모낭 수 감소, 모발 성장 저하, 피부·모발 건강 관련 바이오마커 감소 등 실제 탈모 환자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오가노이드에서도 그대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탈모가 유도된 오가노이드에 두 종류의 소재를 적용해 플랫폼의 평가 기능을 검증했다. 대표적 탈모 치료제 미녹시딜과 대두 유래 천연물 소재를 각각 처리한 결과, 두 경우 모두 줄어들었던 모낭 수와 성장 지표가 회복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이 플랫폼이 기존에 효과가 알려진 화합물은 물론, 신규 천연 소재의

효능까지 검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김현문 팀장은 "치료제뿐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건강 기능식품 소재의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확장성 높은 평가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탈모 치료제 시장은 2030년까지 약 130억 달러(약 1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피 케어·기능성 샴푸 등 관련 화장품 시장까지 더하면 잠재 시장은 배 이상으로 커진다.

이 플랫폼의 상업적 가치를 끌어올리는 또 하나의 요인은 규제 환경의 변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의약품청(EMA) 등 주요 규제기관은 최근 동물실험 축소·대체 정책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인간 세포 기반 대체 평가 모델이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 되어가는 흐름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코스맥스의 소재 개발 역량과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플랫폼 기술이 결합되면서 연구개발과 상업화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eoul.co.kr



metro

>> 1면 '통화·정책·소통...'서 계속

## 생산자 물가·소비심리 등 '금리 밖 난제' 관리 주목

이어 정책 수단을 재점검하고 정부와의 정책 공조, 시장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런 문제의식은 최근 숫자들과 맞물린다. 한은은 지난 10일 기준금리(연 2.50%)를 동결하면서 물가의 상방위험과 성장의 하방위험이 동시에 커졌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은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을 2.7%를 제시했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2월 전망치(2.2%)를 상당폭 웃돌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3월 수입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18.4%, 전월 대비 16.1% 올라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 "기존 틀만으로는 금융시스템 위험 파악·대응 어렵다"

금융안정에 대한 접근도 기존보다 넓어졌다. 신 총재는 취임사에서 "오늘날 금융시장이 은행과 비은행, 국내와 해외의 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고 자산시장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어 기존 틀만으로는 금융시스템 위험을 충분히 파악·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존 건전성지표뿐 아니라 시장 가격지표의 움직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비은행 부문 정보접근성과 부외거래·비전통 금융상품에 대한 분석 범위도 넓히겠다"고 했다. 금리 하나로 거시안정을 끌고 가기 어려워진 현실에서 금융안정의 관측 틀부터 넓히겠다는 의미다.

구조 문제를 통화정책 바깥으로 밀어내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 총재는 구조적 요인이 통화정책과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통화정책 운영의 중요한 일부"라고 못박았다.

신현승호의 첫 시험대는 이번 주 바로 등장한다. 오는 22일 3월 생산자물가지수, 23일 4월 소비자물가지수 결과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가 잇따라 공개된다.

생산자물가는 중동발 비용 충격이 어디까지 번졌는지, 소비심리는 내수 체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국내총생산(GDP)은 성장 하방압력이 실제 숫자로 얼마나 확인되는지를 각각 보여줄 전망이다. 결국 새 총재의 첫 주는 '언제 금리를 움직일까'보다 '금리 밖의 난제를 어떻게 관리할까'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주희 기자 gh471@

## 정부 "민생안정 위해 석유최고가격제 흔들림 없이 추진"

산업부, '석유수요 억제 방해' 반박  
24일 유종별 4차 최고가격 시행 방침  
이란, 美 2차 협상 대표단 파견 통보

미국과 이란의 2차 회담이 2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한 석유최고가격제가 가격을 과도하게 억누르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가격 통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선택한 최고가격제는 물가 안정 등 민생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며 "특히 화물차 운전자, 농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와 취약 계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석유수요 억제를 방해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해의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대비 한국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률은 각각 18.4%, 25.0%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휘발유 35.6%, 경유 47.1% 상승)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휘발유 7.28%, 경유 9.4% 상승)보다는 높은 수치다. 일본 역시 우리와 유사하게 정유사 보조금을 통해 가격 인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실장은 "일본의 경우 보조금을 대거 투입해 상승률을 7~9%대로 억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고가격제 시

행 중에도 일본보다 2.5배 높은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고가격제가 가격을 억지로 누르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오는 24일 유종별 특성을 반영한 4차 최고가격을 최종 결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휘발유는 일반 소비자 중심인 반면, 경유는 60% 이상이 화물차, 농어민 등 생산 활동에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비축유 활용도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4개 정유사의 4~5월 비축유 swap 신청 물량은 약 3200만 배럴이며, 이 중 4월분 1700만 배럴을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업계의 원료 수급을 위한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만우 산업정책관은 보건·의료용 수액 포장재, 주사기 등 주요 소재 재고가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재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HD현대는 5월 중 에틸렌 가스 2000톤을 공급하고 이 중 여유분 200톤을 중소 조선사에 공급하는 등 상생 협력을 추진한다.

이 정책관은 "한국화학산업협회 중심 33개 업체가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내수에 최우선 공급하기로 했다"며 "나프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6월 이후 원료 확보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란이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미국과의 2차 평화 회담에 협상단을 보낼 것이라고 중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 수출플러스 지원단, 기업 간담회... "최대한 빠르게 추경 집행"

이형일 단장, 첫 현장행보 나서

이형일 수출플러스 지원단장(재정경제부 제1 차관·사진)은 중동 사태에 따른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경'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단장은 21일 서울 구로·금천구에 소재한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수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수출바우처 등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동물류센터 지원 강화, 핵심 품목공급망 안정화도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해답은 늘 현장에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각지를 찾아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애로와 개선 과제는 신속히 정책

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지원단 출범 이후 단장의 첫 현장 행보로, 최근 중동 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 따른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 플러스 지원단은 '2030년 수출 1조 달러 달성' 등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동발 물

류 애로와 함께 해외 거래처 발굴, 마케팅 등 수출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원단과 수출 유관기관들은 기업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수출환경에 대응해 업종·분야·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투자·보증 등 정책금융 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신현승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으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

# 삼성·SK, AI 메모리 증설에 EUV 확대... 美 규제 변수 여전

**삼성 테일러랩 장비 반입식 열고 2나노 GAA 공정 적용 준비 박차 평택 P4·P5 EUV 장비 확보 속도**

**SK 청주 M15X 생산기반 강화 나서 1c D램 전환으로 HBM 대응 확대 AI 메모리 증설 경쟁 본격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에 첨단 생산 설비를 속속 들이며 인공지능(AI) 메모리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성능 강화를 위한 미세공정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초정밀 반도체 제조장비 확보 경쟁도 함께 가열되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랩 공장 가동 준비를 마치고 오는 24일 주요 장비 반입식을 열 예정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2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 적용을 추진하면서 EUV 등 고난도 장비 투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EUV장비는 10나노미터 안팎의 초미

세 회로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로 7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생산의 핵심 설비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EUV 발주 확대를 단순한 장비 구매를 넘어 HBM을 비롯한 전반적인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 신호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도 설비 변경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공정 설비 개선에 나섰다. 해당 공장에는 화학물질 테오스(TEOS) 공정 장비와 히터 블랭킷, 원격 전력 제어 시스템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경기도 평택(P4·P

5) 공장에 투입할 장비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ASML에 EUV 리소그래피 시스템 약 20대를 발주한 바 있다. 경쟁사들 대비 초기 공정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리소그래피 장비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 또한 청주 M15X에 신규 생산시설을 조성하면서 EUV 장비를 늘리고 있다. 회사는 지난 3월 ASML로부터 11조 9497억원 규모의 EUV 노광장비를 오는 2027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인도받기로 했다. 이를 통해 1c(10나노급 6세대) D램 공정 전환에 속도를 내고 AI 메모리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c 공정은 차세대 HBM과 데이터 더블레이트(DDR5), 저전력 데이터 더블레이트(LPDDR6) 등 주요 제품군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중국 생산기지 운영에는 제약요인이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확대 움직임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간 미국은 중국에 대한 EUV 장비 수출을 제한

해 왔으나 최근에는 규제 범위를 십자외선(DUV) 장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동맹국에도 유사한 수준의 수출 통제 동참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낸드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 공장에서 D램 40%, 낸드 20%를 생산한다. 해당 공장들은 범용제품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장비 도입 및 공정 업그레이드가 제한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공장은 범용 제품 위주로 운영되는 만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미국의 수출 규제 변수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에서는 국내 생산 비중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 향후 영향을 종합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 애플, 15년만에 리더십 교체... 새 CEO에 '존 터너스'

**팀 쿡, 울여름 CEO직 마무리 AI·폴더블·탈중국 공급망 속세 애플, 기술혁신 중심 재편 주목**



(오른쪽부터)애플 파크에서 대화하고 있는 팀 쿡 CEO와 존 터너스 차기 CEO. /애플 뉴스룸

애플을 15년간 이끌어온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자리에서 물러난다. 스티브 잡스 이후 애플을 이끌어온 쿡 체제가 전환점을 맞으면서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 존 터너스 시대가 펼쳐질 전망이다.

애플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존 터너스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 부사장(50)이 오는 9월 1일부터 CEO를 맡는다고 밝혔다. 쿡 CEO는 인수인계를 위해 올 여름까지 CEO직을 수행한 뒤 이사회 의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결정은 이사회 만장일치로 승인됐으며, 장기적인 승계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쿡 CEO는 고(故) 스티브 잡스 설립자가 건강 문제로 물러난 2011년 CEO직을

넘겨받아 약 15년간 회사를 이끌었다. 쿡 CEO는 성명을 통해 "애플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다"며 "존 터너스는 엔지니어의 통찰과 혁신 역량을 겸비한 인물로 애플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후임으로 지명된 터너스는 지난 2001

년 애플에 합류해 2021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아이폰·맥·아이패드·애플워치·에어팟·비전프로 등 주요 제품군의 하드웨어 개발을 총괄해온 핵심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이사회에도 합류할 예정이다.

터너스는 "애플의 사명을 이어갈 기회를 갖게 돼 영광"이라며 "잡스와 쿡 체제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터너스 신임 CEO가 취임과 동시에 마주할 과제도 적지 않다. ▲AI 사업 경쟁력 강화 ▲폴더블 아이폰 대응 ▲탈중국 공급망 재편 ▲신사업 안착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우선 AI 경쟁력 확보가 최대 과제로 지목된다. 애플은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대비 AI 분야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터너스가 그동안 AI 기반 디바이스 개발을 주도해온 만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애플식 AI' 전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폴더블 아이폰 역시 중요한 시험대다. 애플이 폴더블폰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터너스 취임 이후 제품 전략 변화 방향에 관심이 쏠

린다. 2027년 아이폰 출시 20주년을 겨냥한 차세대 디자인 변화 역시 터너스 체제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급망 재편도 핵심 과제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변수 속에서 애플은 인도·베트남 등으로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기존 중국 중심 공급망 구조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속도를 낼지 여부가 주목된다.

업계는 엔지니어 출신 CEO의 등장이 애플의 전략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쿡 체제가 공급망 관리와 운영 효율 중심이었다면 터너스 체제에서는 제품 경쟁력과 기술 혁신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AI 경쟁력 확보 여부가 향후 애플의 위상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 퀄컴 CEO 방한... 반도체·전장 동맹 강화

삼성, 차세대 AP 2나노 생산 협력 논의 SK, HBM 등 AI 메모리 수급 방안 점검 LG, 온디바이스 AI·전장 협력 모색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가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경영진들과 만나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전장 분야 협력 논의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아몬 CEO는 이날 삼성전자 한진만 파운드리 사업부장(사장)을 비롯한 파운드리 경영진과 회동한다.

양사는 퀄컴의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를 삼성전자의 2나노미터(nm·10억분의 1m) 공정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몬 CEO는 지난 1월 열린 CES 2026에서 "삼성전자와 2나노 공정 활용 위탁생산 논의를 시작했다"며 설계 작업이 끝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퀄컴은 스마트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AP 분야의 강자로 반도체 제조사들의 주요 고객이다.

삼성전자와 퀄컴은 30여년간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아몬 CEO는 이날 SK하이닉스 경영진과도 만나 메모리 반도체 수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지난해 AI 가속기 'AI200'과 'AI250' 등을 공개하며 서버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D램 수급과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몬 CEO는 이날 오후에는 류재철 LG전자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비공개로 만난다.

양사는 온디바이스 AI 및 전장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가 최근 퀄컴이 주도하는 '6G 연합'에 합류한 만큼 AI 기반 6G 기술 협력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차현정 기자



metro

# 달리는 개미들... 거래계좌 1억430만개 돌파

▶▶ 1면 '6388 하늘 뚫은...' 서 계속

여기에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등 긍정적 변화가 아직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상승 논리를 뒷받침한다.

개미들은 앞다퉈 증시로 뛰어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주식거래활동계좌수는 1억430만9647개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서는 63만5074개, 전주말보다는 27만7334개 증가한 개수다. 설마했던 주가지수가 계속 우상향하자 '포모'(FOMO·소의 공포)에 휩싸인 개인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주식시장으로 발길을 옮긴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조용히 발을 빼는 모양새다. 외국인은 중동 전쟁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30조4500억원을 팔았다. 삼성전자를 16조9200억원, SK하이닉스를 5조8400억원 순매도했다.

국제 유가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20일(현지시간)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증가는 배럴당 95.48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5.10달러(5.64%) 상승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5.76달러(6.87%) 오른 배럴당 89.6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신하은 기자 godhe@

# 현대차, '14억 인구' 국민차 공략... 현지 맞춤 '3륜 전기차' 개발

TVS 모터 컴퍼니와 공동개발협약 인도 맞춤형 마이크로모빌리티 확대 가격·지속가능성·안전성 확보 목표 인도 부품 생태계 강화·고용창출 기여

현대자동차가 14억 인구 대국 인도의 '국민차' 3륜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인도 3륜차 시장이 전동화 바람을 타고 본격적인 체질개선에 나선 만큼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있다.

현대차는 20일(현지시간) 인도 델리 바랏 만다팜 컨벤션 센터에서 현지 3륜차 제조사 TVS 모터 컴퍼니와 '3륜 전기차(E3W)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개발협약(JDA)'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인도 시장 맞춤형 마이크로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이다.

이번 협력은 2018년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시작된 논의를 기반으로 약 8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당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에



현대차 경영전략담당 고중선 전무(왼쪽), TVS 전략 담당 샤르드 모한 미쉬라 사장이 3륜전기차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현대자동차

게 열악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인도 시장에 최적화된 새로운 모빌리티 개발 검토를 지시하며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현대차는 이후 현지 특화 친환경 모빌리티 개발에 나섰다. 특히 2024년 인도법

인 상장(IPO) 당시 현지를 방문한 정 회장은 모디 총리와 다시 만찬자리에서 현대차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신규 모빌리티의 디자인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견고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사는 인도 도로 환경과 도시 인프라에 최적화된 3륜 전기차를 공동 개발할

다. 목표는 가격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라스트 마일' 이동수단이다.

현대차는 차량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을 주도하고, TVS는 생산·판매·애프터 서비스를 맡는다. 주요 부품도 현지에서 조달·생산해 비용 경쟁력을 높이고 인도 부품 생태계 강화 및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될 E3W는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함께 안전·편의 사양을 대거 적용해 현지 고객 경험을 강화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앞서 '바랏 모빌리티 글로벌 엑스포 2025'에서 관련 콘셉트를 공개한 바 있다.

고중선 현대차 전무는 "인도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TVS 측도 "양사의 기술과 시장 이해를 결합해 인도 맞춤형 3륜 EV 솔루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사는 향후 시험 주행과 인증 절차를 거쳐 인도에 우선 출시한 뒤, 다른 3륜차 시장으로 확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인도 3륜차 시장은 전동화로 전환하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MARC에 따르면 인도 3륜차 시장은 연간 약 70만~80만대 규모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에는 74만1000대가 판매, 4억 1029만달러를 기록했다.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7.87% 성장해 2034년에는 8억 3133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2년전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과 함께 안정적인 구조를 만든 만큼 인도 기업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며 "이번에 현지 업체와 협력에 나서면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는 중국 이상으로 성장할 정도로 규모가 큰 중요한 시장이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K-파운더스 네트워크' 첫 거점 세워... 국내 中企 글로벌 무대로

중기부, 인도 중기부와 中企 분야 협력 IIT와 창업기업 생태계 활성화 논의 중진공, MIDC와 투자촉진·산업협력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의 현지 수출·진출을 위해 다양한 협력 모색에 나섰다.

인도 중소기업부와 손잡고 양국 중소기업 분야 상호 협력을 촉진한다.

인도 현지 한인 창업가 중심의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 in India'를 발족하고, 인도 최고 엘리트 양성 대학인 인도 공과대학(IIT)과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중진공은 마하리슈트라 산업개발공사(MID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자 확대에 나선다.

21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중기부와 중



21일 인도 뉴델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한-인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교환식'에서 (왼쪽부터)최일수 창업진흥원 본부장, 상기타 굽타 NASSCOM 부대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바르샤 타쿠르 구게 MIDC 공동 CEO, 박장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소기업 분야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증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과 인도가 중소기업 분야 혁신 파트너십 구축에 뜻을 모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인도 중소기업 협력 워킹그룹' 운영에 대

한 구체적 내용과 함께 대기업 중심의 인도 진출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튿날에는 인도 뉴델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에서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 in India' 발족

식'을 가졌다.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활동 중인 한인 창업가와 투자자들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올해 중기부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국제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인도를 첫 번째 거점으로 낙점했다.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향후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주요국으로 교류를 확대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창업가들이 서로 돕고 끌어주는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인도를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거점에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창업가들이 세계 어디서든 든든한 조력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도의 우수한 인재와 한국의 혁신적인 창업 역량이 결합한다면 강력한 시너지가 날 것이며

대한민국 '모두의 창업'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공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창업 생태계 협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또 인도 공과대학(IIT) 델리캠퍼스를 방문해 총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창업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기술 창업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런 가운데 중진공은 전날 MIDC와 '투자 촉진 및 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하리슈트라주는 인도의 최대 산업·제조 중심지 중 한 곳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투자촉진 및 행정지원 ▲인력양성·교육 ▲미래 신기술 협력에 힘쓰기로 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마하리슈트라주 산업 단지 및 인프라를 연계 지원하고 기업 진출 과정에 걸쳐 협력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HD현대, 인도 중앙정부와 합작 조선소 설립 추진

NSHIP TN, SMFCL 조선투자펀드 최대 주주로서 조선소 운영 전반 총괄

HD현대 인도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합작 조선소 설립을 추진하며 현지 조선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HD현대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NSHIP TN', 사카르말라 금융공사(SMFCL)와 신규 조선소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NSHIP TN은 인도 중앙정부 산하 VOC 항만청이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향후 정부 지원 정책과 인센티브 집행을 담당한다. HD현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구조를 구체화하고, 협력 범위도 중앙정부 차원으로 넓

히게 됐다.

앞서 HD현대는 지난해 12월 인도 남부 타밀나드주와 신규 조선소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 라운드테이블'에서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HD현대는 NSHIP TN, SMFCL이 조성하는 조선투자펀드와 함께 신규 합작 조선소(JV)를 설립하고, 최대 주주로서 조선소 운영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자국 내 선박 건조 수요 일부를 HD현대의 국내 조선소에 우선 발주하고, 현지 인력을 파견해 기술 습

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HD현대는 인도 내 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자동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조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조선소 구축도 추진한다. 설계·생산·운영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인도 조선 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해 현지 인재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내 협력사의 인도 진출 지원도 병행한다. 신규 합작 조선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현지 진출을 도와 블록, 엔진 등 국내 조선업 생태계의 확장도 이끈다는 구상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 네이버-TCS, 'AI·클라우드' 시너지 극대화

인도 중심 AX·DX 신규사업 발굴

네이버가 인도 최대 IT 서비스 기업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선다.

네이버는 21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TC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와 클라우드, B2C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인도를 중심으로 AX와 DX 분야 신규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둔다.

TCS는 AI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금융, 제조, 유통, 의료, 통신 등 다양한 산업에 IT 서비스

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인도 대표 기업이다. 연 매출은 약 300억 달러 규모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양사는 네이버의 플랫폼 기술력과 TCS의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 및 데이터 자산을 결합해 인도 현지에서 빠른 사업 확장도 수익성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지 수요에 맞춘 AI·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인도가 AI 강국을 목표로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하는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가겠다"며 "AI·클라우드·B2C 분야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AI 시대를 여는 KEY

대한민국 산업화의 문을  
에너지로 열었고

정보화의 문을  
통신으로 열었으며

AI 전환의 문을  
반도체로 열었습니다

국가 성장의 순간마다  
묵묵히 함께 해온 SK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Key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K**



# “AI, 전기와 같은 인프라… 외국산 의존땀 무역장벽 등 우려”

## 인터뷰 | 하정우 청와대 시미래기획수석

하정우 청와대 시미래기획수석은 한국형 인공지능(AI)을 만들어야 한다고 기업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왜 한국형 AI를 독자 개발해야 하는 걸까. 하 수석은 그 이유에 대해 “우리 스스로 AI를 만드는 능력이 없으면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기 같은 인프라를 해외에 의존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강조했다. 기술 경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산 AI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무역장벽’이 생기고, 안보상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메트로경제신문> 등 12개 매체는 지난 8일 청와대 인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하GPT’, 하 수석과 공동 인터뷰를 가졌다. 이번 인터뷰는 과학의 날(4월21일)을 맞아 AI 정책의 방향성과 성과에 대해 다루기 위해 이뤄졌다.

### ◆스스로 AI 만들 수 없으면 국가 안보·무역장벽 문제 생길 수 있어

하정우 수석은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한국형 AI)’을 개발했을 때 국민들이 써야 할 이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일단 국민들이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게 첫 번째”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측면의 이유로 ▲데이터 유출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 ▲AI 구축료의 무역장벽화 등을 꼽았다. 하 수석은 “지금 우리가 오픈 AI의 챗GPT, 구글 답마인드의 제미니, 앤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접근해서 활용을 하지 않나. 모든 데이터가 서버나 데이터 센터가 있는 국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입력 내용이 개인정보일 수도 있고, 공공에서 쓰면 공공의 비밀문서가 될 테고, 국방이라면 국방의 1급비밀도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AI가 없다면 국가 안보 관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가격 기준이 (낮게) 책정돼 있지만, 나중에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고, 국가별 가격 정책을 하는 등 ‘무역장벽’처럼 될 수 있다”며 “지금도 벌써 AI 없이 일하기 힘든 상황인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에 도입되거나 로봇에 탑재돼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시대가 왔을 때 가격 정책을 바꾸거나 활용 범위를 제한하면 큰일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거나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오픈소스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에 대해서는 “지금이야 공짜로 풀지만, 마음이 바뀌면 안 팔면 되는 것 아니냐. 가격을 받기 시작할 수도 있다”며 “실제로 메타가 라마(Llama)’에 대해 가격 구분 정책을 한다”고 반박했다.

하 수석은 “소스 코드 라이선스 정책은 항상 그 이전의 프로젝트 라이선스 정책에 종속된다. 하지만 모델에 대한 라이선스 정책은 매년 바뀐다. 모델은 소스 코드로 실행하지만, 데이터로 만들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라마1과 라마2 라이선스가 다르다. 라마2, 라마3이 다르다. 언제든지 ‘수 틀리면’ 바뀌버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하 수석이 예시로 든 메타의 오픈소스 AI모델 라마는 ‘오픈소스는 영구적으로 자유롭다’는 전제가 깨진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메타는 라마의 특정 버전부터 용도별로 별도 계약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라마1은 연구용으로만 공개해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했으며, 라마2부터는 상업적 이용을 허용했지만, 월간 사용자수(MAU)가 7억명을 돌파하면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별도 계약 조건이 있다고 한다.

하 수석은 “어느 버전부터 ‘국방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따로 연락하세요. 돈 많이 들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가정해보자”면서 “우리가 스스로 AI를 만드는 능력이 없다면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전기 같은 인프라를 해외에 의존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했다.

### ◆소버린 AI는 척화비가 아니라 ‘주도권’ 문제

또한 하정우 수석은 ‘한국형 AI’는 고립이 아니라 주도권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소버린 AI 전략이라는 게 과거 척화비를 세운 것처럼 ‘우리끼리 전부 다 한다’는 게 아니다. 그건 미국도 못한다”면서 “희토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만들려면 메모리가 있어야 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으면 메모리를 확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AI 산업에서는 전력부터, AI 제



하정우 청와대 시미래기획수석이 지난 8일 청와대 인근에서 메트로경제신문 등 12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하는 모습. /뉴스핌·이투데이



한국형 AI, 국민들 당연하게 쓰도록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

많은 분야에서 AI 자체 경쟁력 키우고 부족한 부분 타국 협력으로 채워야

AI 독자개발·연구에 GPU가 핵심  
李 정부, 엔비디아서 26만장 확보  
스타트업 등에 GPU 4000장 보급

GPU 확보, 인재 해외 유출도 막아  
정부 ‘AI 3강’ 전략, 가능성 꽤 높아



작, 그리고 활용까지 모든 국가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역량을 얼마나 키워놓을 것이냐는 의미다. 전력·메모리·AI반도체·데이터센터·클라우드 AI를 만드는 기술 등 모든 것이 다른 나라에 종속되면 공급망 우려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영역이나 공공 영역에서 과하게 의존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나라와 협력을 통해 우리의 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 협력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주도권을 갖는 것이 자율 전략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 ◆GPU 26만장 확보가 가장 의미있어… 인재 유출도 막을 수 있다

AI 독자 개발, 연구에 가장 필요한 것은 GPU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GPU 26만장을 엔비디아로부터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하 수석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10개월 간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당연히 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GPU 없이는 연구·개발 자체가 제반되기 때문이다.

하 수석이 민간 기업에서 근무할 때 AI 업계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종사자들은 GPU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고 한다. 대학과 스타트업뿐 아니라 기업 연구소까지 GPU가 없어 연구·개발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하 수석은 “왜 우리나라는 GPU에 투자를 안 하나냐는 게 (제가) 항상 들던 이야기였고, 심지어 저도 (민간 기업에서 근무할 때) 얘기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PU를 국가차원에서 대규모로 확보한 것을 고속도로 구축에 비유했다. 과거 우리나라가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고속도로가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준 것처럼, GPU 확보 역시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하 수석은 “3월에 대학과 스타트업에 GPU 4000장 보급이 끝났고, 그다음에 4월엔 3000장을 스타트업 중심으로 보급한다. 또 추가로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

하는 민간 기업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스타트업과 학교에 GPU를 제공했더니 스타트업 대표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에 32장 받았는데 너무 좋다’ ‘이 GPU 덕분에 해보지 못했던 걸 할 수 있게 돼서 제대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글이 꽤 많이 올라왔다”며 “교수들도 ‘많이 힘들었는데 GPU를 지원받게 되서 실험을 훨씬 더 많이 해볼 수 있게 됐다’ ‘굉장히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 아주 보람을 느끼는 지점이다”라고 말했다.

GPU 확보는 인프라 투자뿐 아니라 인재 유출을 막는 직접적인 사유도 될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인력 유출과 관련해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해외로 나가는 이유로 ‘처우 차이’가 1위, ‘GPU가 없어서’가 2위였다고 한다.

하 수석은 “만약에 GPU가 조금 더 많이 확보돼서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처우 차이가 크지 않으면 남는다’가 60%였다”며 “그래서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이 GPU 확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GPU는 26만장에서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한다. 하 수석은 “정확한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수요를 기반으로 예측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이라며 “다만 지금보다는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고, 그 수요에 대해 기획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일단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1만3000장이 들어온 바 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 AI 용도로 9000장, 올해 본예산으로 하반기에 1만5000장이 확보되고 그 이후 2만5000장이 또 잡혀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5만2000장이 계획돼 있다고 하 수석은 전했다.

### ◆AI 3강, 가능성 꽤 높다… 3위 그룹의 리더 위치부터 유지해야

한편 하정우 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AI 3강’ 전략에 대해 “가능성이 꽤 높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3위 그룹이라 하면 프랑스, 싱가포르, 영국, 한국, UAE(아랍에미리트) 정도 되는 것 같다. 크게는 이 그룹의 리더 위치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며 “그러면서 중국, 미국과 격차가 많이 줄어들도록 정부가 거의 ‘올인’에 가깝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I 경쟁력이 없으면 국가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 그 다음 정부도 꾸준히 제도적으로나 예산적, 사업 관점에서 투자할 것이며,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수석은 “지금의 반도체 성장을 이끈 건 AI”라며 AI는 이제 개별 산업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AI 활성화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다. 그는 “AI는 개별 산업으로 정의하기 힘들다. 개별 소프트웨어 개발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야 않느냐”며 “우리가 기존에 강점을 가지고 있던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철강 이런 분야에 AI가 들어가야 다른 나라의 비슷한 산업 분야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하정우 시미래기획수석과 비크람 미스리 외교부 수석차관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인도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모두를 위한 금융, 함께 가는 성장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모두의 희망이 하나로 모여 따뜻한 내일로 나아갑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진심이 담긴 포용 금융으로 손님의 성장을 이어갑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증부대출

금융취약계층  
자립 지원

지역  
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금융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포용 금융 지원 • 서민·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 금융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 금융권, SaaS·AI·블록체인 도입... '디지털 전환' 드라이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금융당국, 은행 등 SaaS 규제완화 AI기반 이미지 생성 등 활용 확대 대출심사·마이크로데이터 분석 등 AI기반 서비스 전 영역으로 확대

금융권이 디지털전환(AX)을 가속하고 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개선하고, 고객 상담뿐만 아니라 대출 심사와 내부 감사 업무에도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비용을 효율화한다. 차세대 먹거리 탐색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 ◆ 내부망 SaaS 활용 허용

금융당국은 지난 20일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고객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SaaS를 사용하기 앞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쳐야 했는데, 검증된 소프트웨어에 한해 해당 규제에 예외를 두게 된 것이다.

SaaS는 클라우드 서버(가상화 서버)를 통해 공동 문서작업, 화상 회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화상회의 서비스 '줌(Zoom)'이나 공동 작업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365'



NH농협은행의 무인점포 'NH디지털스테이션 위례점'에 설치된 초고속입출금기(STM). /NH농협은행

등이 대표적인 SaaS이며, 구독제로 운영되는 만큼 인터넷 연결이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실시된 '망 분리'로 금융사들의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된 만큼 내부망에서는 SaaS 서비스 이용이 까다로웠다.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농협)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다수의 계열사에서 SaaS를 활용 중이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작년에만 각각 23건의 SaaS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 기존에는 SaaS가 공동 작업, 화상회의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됐지만,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생성 ▲인사·회계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영역까지 SaaS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 ◆ 인공지능(AI) 활용 증가

금융권은 인공지능(AI)의 활용도 늘리고 있다. 기존에는 '챗봇'이나 'AI ARS' 등 모바일·인터넷 뱅킹의 고객 상담에 주로 활용했던 AI 기반 서비스를 ▲대출 심사 ▲투자 제안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및 상품제안 등 소비자금융 전(全) 영역으로 확대했다. 통장·카드 발급 등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와 AI 기반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 시 직원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STM(고성능 현금입출금기)

도 등장했다.

내부 업무에도 AI 활용을 늘린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대출 심사 시 기존 신용점수 기반 모델에 AI 기반의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한 '대안 신용평가'를 시험하고 있다. '신용 인플레'로 분별력이 낮아진 기존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AI를 활용해 내부통제를 강화했으며, 전표처리 등 단순 사무업무를 AI가 보조하도록 해 직원 생산성도 향상했다.

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AI를 도입하는 것은 비용 효율화의 측면이 크다. 직원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직원당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 보조를 통해 보다 많은 고객을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 ◆ '블록체인' 인프라 선제 구축

금융회사들은 '블록체인' 시장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누구나 변경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활용한 '가상 자산'은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술의 산물이다.

금융권에서 주목하는 것은 '스테이

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화폐가치에 대해 발행하는 가상자산이다. 기존 화폐와 동등한 가치를 갖지만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송금이나 결제 시 소요되는 비용은 더 낮다. 스테이블코인이 간편결제, 환전, 송금 등 영역에서 기존 금융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근거법이 없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불가하다. 그러나 4대 금융은 블록체인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기술 검증(POC)을 진행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iM금융이 자체 개발 블록체인 기반 선불결제 서비스를 실증하면서,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결제 시스템 구축 가능성도 제시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의 패러다임이 디지털 금융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각 금융사들도 경쟁력을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라면서 "최근에는 각종 규제 완화에도 속도가 붙는 만큼,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의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 여신금융협회, 차기회장 선임 회추위 가동

이달 말 이사회, 내달 회추위 수순 서태종·김근익·이동철 등 하마평

반년 가까이 표류했던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된다.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한 달 이상 걸리는 만큼 오는 6월까지 현 회장이 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말 차기 회장 인선 절차를 위해 이사회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구성 이사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달 회추위를 본격 가동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아직 회추위 간담회에 관한 구체적인 날짜는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이달 말 이사회와 이사회 간담회를 먼저 진행하고, 내달 회추위를 개최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회추위를 이끌 의장을 선출하고, 향후 인선을 위한 일정과 절차를 조율할 예정

이다. 현재 여신금융협회 이사회는 정완규 회장과 카드사 및 캐피탈사 대표 1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 구성원은 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차기 회장 선임은 이사회 회추위 구성, 후보 공모 및 심사, 최종 후보 추천, 총회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마무리된다. 선임 과정에 2개월가량 소요되는 만큼 추가 지연 변수가 없다면 새 협회장은 6월 말~7월 초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선 절차 개시는 정완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정 회장의 임기는 지난해 10월까지였다. 그러나 임기 만료 후에도 차기 회장 선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통상 회추위는 현 회장 임기 만료 최소 두 달 전부터 구성돼 왔다. 최근 10년 내 최장 지연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13년 제9대 이두형 전 회장 후임 인선에는 2개월의 공백이 있었고, 2022년 제12대 김주현 전 회장 후임 인선은 4개월가량

늦어진 바 있다.

현재 일정에서 추가 지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현재 일정에서 그렇게 많이 지연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차기 회장 후보에는 민관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서태종 전 한국금융연수원장, 김근익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이동철 전 KB금융 부회장, 임영진 전 신한카드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한편, 이번 여신금융협회장 선임을 계기로 표류하던 다른 금융권 수장의 선임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화재보험협회의 경우 지난해 2월 임기가 만료된 강영구 이사장의 후임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고, 지난해 11월 임기가 종료된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후임 절차도 예상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GS건설, 인도 '재생에너지' 사업 본격 진출

아리 에너지·수출에너지와 MOU

GS건설은 인도 재생에너지 리파워링 기업 아리 에너지(Arie Energy), 인도 풍력 발전 선두기업 수출에너지(Suzlon Energy)와 각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인도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아리 에너지와는 리파워링 사업

을 공동 추진한다.

리파워링은 노후 풍력발전소를 최신 터빈으로 교체해 발전량을 늘리고, 초기 개발 리스크를 줄여 수익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향후 5년 내 인도에서 1기 가와트 규모의 풍력 리파워링 프로젝트를 확보하는 게 목표다. 양사는 합작법을 통해 프로젝트를 개발부터 투자, 운영까지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GS건설은 투자·금융 조달과 사업 구조

화를 맡고, 현지 기업은 인허가와 부지 확보를 담당한다.

수출에너지와는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통합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공동 개발한다. 인도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사업 구조화·투자·금융 조달을, 수출에너지는 기술 최적화와 발전소 운영을 담당한다. 특히 발전원 다변화를 통해 기후 변수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공급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성재리 인턴기자 cr56@

## 차 보험 가입자, 보장 넓히고 보험료 줄였다

보험개발원, 2025 자가용 보험 현황 평균 보험료 68만원... 2.3% 낮아져

고유가와 차량가격 상승이 맞물린 가운데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보장은 넓히면서도 보험료는 아끼는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물배상 한도와 자차담보 가입률은 높아진 반면, 다이렉트 가입과 할인특약 활용이 늘면서 평균 보험료는 68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21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는 차량가격 상승에 따라 보상 한도를 확대하면서도 비대면 가입과 할인특약을 활용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가입 경향이 한층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평균 보험료가 전년보다 2.3% 낮아진 68만원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분석했다.

보장 범위는 확대됐다. 개인용 자동차의 평균 차량가액은 2023년 1640만원에서 2024년 1696만원, 2025년 1745만원으로 상승했다. 신차 기준 평균 차량 가격도 같은 기간 4847만원에서 5026만원, 5243만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대물배상 3억원 이상 가입 비중은 84.6%로 높아졌고, 10억원 이상 고액 구간 가입 비중도 51.0%로 절반을 넘어섰다. 자차담보 가입률 역시 85.8%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배터리 교체 비용과 전손 위험이 큰 전기차의 자차 가입률은 96.1%에 육박했다.

보험료 절감 측면에서는 비대면 채널 풀림이 더 뚜렷해졌다. CM(사이버 마케팅) 채널 가입률은 2023년 47.0%,



비대면채널 보험 가입으로 차보험료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주유하고 있다. /뉴스1

2024년 49.5%, 2025년 51.4%로 올라 과반을 차지했다. 같은 시점 대면채널 가입률은 31.7%, TM(텔레 마케팅)은 15.8%, 플랫폼 마케팅(PM)은 1.1%였다. 보험개발원은 CM 채널 보험료가 대면채널보다 평균 19%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CM 가입률이 69.1%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에서도 CM 가입률이 36.3%까지 올라 대면채널(42.8%)과의 격차를 좁혔다.

할인특약도 사실상 '선택'보다 '필수'에 가까워졌다. 주행거리 특약 가입률은 88.4%로 높아졌고, 보험료 환급률도 10.2%로 상승했다. 가입자의 66%가 환급 기준을 충족했고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만3000원이었다. 긴급제동 경고장치와 차선유지 경고장치 장착률도 각각 44.3%, 43.8%로 높아지면서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 활용 역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사고경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우량등급 가입자도 늘었다. 할인등급(11F~29P) 가입자 비중은 2023년 88.3%, 2024년 88.9%, 2025년 89.5%로 상승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 LG전자, AI DC 냉각솔루션 대거 공개... 美 B2B 사업 박차

## 데이터센터월드 2026

DTC 방식 '냉각수 분배장치' 전시  
GRC 공동개발 액침냉각솔루션 소개  
통합관리·전력 인프라 등 영역 확장

LG전자가 폭증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발열 문제를 겨냥한 차세대 냉각 솔루션을 미국 시장에 대거 공개하며 B2B 사업 확대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LG전자는 현지시간 20일(미국 현지시간 19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데이터센터월드(DCW) 2026'에 참가해 공기·액체·액침 냉각을 아우르는 AI 데이터센터용 열관리 솔루션과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을 총망라한 토탈 HVAC 솔루션을



LG전자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현지시간 20일 개막한 'DCW 2026'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에서 LG전자는 AI 데이터센터용 공기·액체·액침 냉각 등 열관리 솔루션부터 에너지 사용 최적화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안했다. /LG전자

선보였다.

이번 전시의 핵심은 액침냉각 솔루션의 핵심 장치인 '냉각수 분배장치(CDU)'다. 칩 위에 냉각수가 흐르는 급속관

을 직접 엮어 열을 제거하는 '직접 칩 냉각(DTC)' 방식을 채택했으며, 신형 CDU는 냉각 용량을 기존 650kW에서 1.4MW로 2배 이상 끌어올렸다. 가상센서 기술

도 적용해 일부 센서 고장 시에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 액침냉각 전문 기업 GRC, SK엔부브와 공동 개발한 액침냉각 솔루션도 처음 공개됐다. 전자기기를 특수 비전도성 냉각 플루이드에 직접 담가 냉각하는 방식으로, GRC와 개발한 탱크 시스템과 SK엔부브와 개발한 냉각액이 통합된 형태다. 기존 공기냉각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고발열 AI 서버 환경에 유리해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공기냉각 분야에서는 내부 온도에 따라 작동 방식을 자동 최적화하는 공랭식 프리쿨링 칠러 라인업도 함께 전시했다.

LG전자는 하드웨어에 그치지 않고 통합 관리 시스템과 전력 인프라 솔루션까지 제시하며 토탈 솔루션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강조했다. 소프트웨어 'DCC

M'은 CDU·칠러 등 복합 설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사전 감지한다. 에너지 운영 플랫폼 '파도(PADO)'는 전력 낭비를 분석해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LS일렉트릭과 협업한 직류(DC) 그리드 솔루션은 전력 변환 단계를 최소화해 에너지 손실률을 기존 25%에서 15% 수준으로 낮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 사장은 "열관리부터 에너지 효율까지 토탈 솔루션 역량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앞세워 AI 데이터센터 HVAC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 벤츠, 하반기 '더 뉴 S-클래스' 출시 예고

서울서 '140년. 140개 도시' 캠페인  
'더 뉴 마이바흐 S-클래스' 등 전시

메르세데스-벤츠가 세계 최초 자동차 특허 출원 140주년을 기념해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캠페인 '140 Years. 140 Places. (140년. 140개 도시)'를 서울에서 진행했다. 벤츠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주요 국가를 투어하고 있는 '더 뉴 S-클래스'와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를 공개하며 하반기 국내 출시를 예고했다.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 코리아 대표이사는 21일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에서 열린 캠페인 행사에서 "한국은 벤츠의 5대 시장이자, 마이바흐의 3대 시장으로 S클래스가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며 "올 하반기 새로운 S클래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행사는 칼 벤츠의 세계 최초 자동차 특허 출원 140주년을 기념해 더 뉴 S-클래스와 함께 6개 대륙 140개 도시를 순회하는 행사다. 벤츠는 지난 1월 29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더 뉴 S클래스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총 5만km 이상의



140주년 기념 더 뉴 S-클래스 캠페인 차량. /양성운 기자 ysw@

여정을 통해 140년간 이어온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기술력, 개척 정신을 조명한다.

서울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 세계 140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돼, 전 세계에서 유일한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7월 문을 연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은 세계 최초의 마이바흐 고객 전용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더 뉴 S-클래스와 더 뉴 마이바흐 S-클래스를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기존 S-클래스 대비 라디에이터 그릴이 20% 더 커졌으며, 3차원 크롬 삼각별을 통해 강조된다. 벤츠는 차량 구성의 50% 이상인 약 2700개 요소

가 새로 개발되거나 재설계했다. 특히 새로운 S-클래스는 메르세데스-벤츠 운영체제(MB.OS)를 탑재했다. 이 슈퍼컴퓨터는 주행 보조에서 인포테인먼트, 주행 성능 등 모든 도메인에 관여하며, 더 빠른 처리 속도와 연산 능력, 깊게 통합된 경험을 제공한다.

차량의 4세대 MBUX는 챗GPT와 마이크로소프트 Bing, 구글 제미니의 인공지능(AI)을 함께 사용하며, 여러 AI 에이전트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 결합한다. 파워트레인은 8기통 및 6기통 가솔린 엔진부터 6기통 디젤 엔진,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했다.

크리스티나 센크 메르세데스-벤츠 AG 디지털&커뮤니케이션 및 IR 총괄 부사장은 "혁신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며 "1886년 자동차 특허 출원 이후 ABS, ESP, 에어백, 최근 '스티어 바이와이어' 기술까지 혁신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심장박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 LG AI연구원, '암 에이전틱 AI' 성과 공유

암 조직분석·치료전략 하루만에 수행

LG AI연구원과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메디컬 센터는 지난 17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미국 암연구학회(AACR) 2026'에서 공동 개발 중인 '암 에이전틱 AI'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두 기관이 공개하는 '암 에이전틱 AI'는 암 환자의 조직 분석부터 치료 전략 설계까지 전 과정을 하루 만에 수행하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암 에이전틱 AI'의 출발점은 조직 병리 이미지 한 장으로 1분 이내 조직 내 암 유전자 활성을 예측하는 병리 인공지능(AI) '엑사원 패스(EXAONE Path)'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패스의 조직 내 암유전자 활성 예측 정확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표적 약물을 적용할 수 있는 환자군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암 에이전틱 AI'는 LG 엑사원과 암 병리 특화 AI 등을 기반으로 만든 다중 AI 에이전트의 협업 구조로 동작한다.

각 AI 에이전트는 ▲암 조직 이미지 분석 ▲조직 내 암유전자의 위치 및 활성 정보 확인 ▲AI 예측 결과와 실제 측정 결과 대조·검증 ▲후보 약물 반응 검증 및 평가 ▲치료 전략 설계 ▲최종 판단 지원까지 암 치료를 위한 준비 과정을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전문 의료진은 ▲환자의 병력·특이 사항 점검 ▲조직 내 암유전자 활성 예측과 실제 결과 비교 ▲약물 반응 데이터 검증 ▲최종 치료 결정 등 4단계에 걸쳐 의사 결정을 내리며 AI와 협업한다.

LG AI연구원과 황태현 교수 연구팀은 위암을 시작으로 대장암과 폐암 등 다양한 암종으로 에이전틱 AI 적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장종성 LG AI연구원 바이오 인텔리전스랩장은 "LG는 AI 에이전트들이 전문 의료진과 협업해 개인별 맞춤 함암치료를 혁신할 수 있는 '두뇌'를 만들어, 암 진단부터 치료법 결정까지 평균 4주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하루로 단축해 암 환자의 치료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 S95H, 외신 호평 쏟아져... "독보적 OLED TV"

삼성전자 프리미엄 TV 시장 두각

삼성전자의 2026년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신제품 'S95H'가 미국과 영국의 주요 정보기술(IT) 매체들로부터 연이어 호평을 받으며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S95H에 대해 "디자인·화질·사운드 품질 등 모든 측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선보였다"며 "다른 TV들이 넘어야 할 독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포브스는 특히 S95H의 '플로트레이어(FloatLayer)' 디자인에 주목했다. 화면이 두 층 구조로 전면 돌출된

형태에 넓은 후면 플레이트와 대담한 메탈릭 테두리가 조화를 이뤄 입체감과 시각적 존재감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미국 IT매체 피시맥도 S95H에 "지금까지 출시된 OLED TV 중 가장 인상적인 제품"이라며 "눈부신 밝기, 넓은 색 영역, 생생한 화질로 OLED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새롭게 적용된 실버 프레임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는다"고 호평했다.

또 다른 미국 IT매체 테크아리스는 해당 제품을 '2026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했다. 탁월한 화질과 다양한 게이밍 기능을 갖춰 색 표현력과 성능을 중시하

는 소비자에게 강력 추천할 제품이라고 평가하면서 AI 축구 모드가 화면 속 경기를 자동으로 인식해 실제 경기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한다는 점도 특별히 언급했다.

영국 IT 전문 매체 트러스티드 리뷰는 만점인 별 5개를 부여하고 '강력 추천(Highly Recommended)' 제품으로 선정했다. 이 매체는 "삼성전자의 2026년형 OLED TV 신제품은 완성도 높은 압도적인 밝기와 정확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화질과 정밀한 필름 메이커 모드를 완벽히 구현한다"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 현대차, 유럽 전략모델 '아이오닉 3' 공개

소형 해치백... 1회 충전 496km 주행

현대자동차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차세대 소형 전기차 '아이오닉 3'를 세계 무대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현대차는 2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26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3'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아이오닉 3는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최신 모델로, 일상속에서 진보된 전동화 기술을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럽 시장 전략형 소형 해치백이다.

이번 신차의 핵심은 공기역학 효율과 공간성을 동시에 극대화한 '에어로 해치' 디자인이다. 매끄러운 루프라인과



'아이오닉 3'. /현대차

리어 스포일러를 통해 0.263의 뛰어난 공기저항계수를 달성했다.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1회 충전 시 최대 496km(유럽 WLTP 기준, 롱레인지 모델)의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아울러 유럽 판매 모델 최초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운영체제(AAOS) 기반의 '플레오스 커넥트'를 탑재했다. /양성운 기자

# 항공유 유류할증료 최고치... 항공사들 감편·긴축경영 돌입

국제선 유류할증료 첫 33단계  
내달 발권분 국제·국내선 급등  
환율 상승에 비용 부담 가중  
수요 둔화 우려에 실적 비상  
무급휴직·정부지원 등 검토

국제선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되는 항공유 가격이 지난 2016년 현행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고 단계인 33단계에 진입했다. 항공사들이 5월 발권분 유류할증료를 큰 폭으로 올렸지만 환율 상승과 수요 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비용 부담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21일 한국투자증권과 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3단계가 적용된다. 33단계는 항공유 가격 배럴당 198달러에 해당하지만, 실제 5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 기간(3월 16일~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511.21센트(배럴당 214.71달러)로 기준선을 크게 웃돌았다. 전쟁 발발 이전인 지난 3월 6단계였던 유류할증료가 불과 두 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것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이에 맞춰 5월 발권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일제히 큰 폭으로 인상했다. 전반적인 인상률은 70~90%대에 집중됐고 일부 구간은 100%를 넘겼다. 전에는 대부분 구간에서 80%



대한항공 B787-10.

대 후반 인상률을 보였고,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도 70% 후반~80% 초반 수준으로 올렸다. 대한항공은 2000~4000마일 중거리 구간에서 100%를 넘는 인상률을 기록했고, 아시아나항공도 전 구간에서 80~90%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크게 뛰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은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3만4100원으로 책정했다. 4월 7700원보다 2만6400원 오른 수준이다. 티웨이항공도 88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을 했다.

문제는 유류할증료 인상만으로 수익성 악화를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항공권 가격 상승이 여행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환율 상승까지 겹치며 비용 부담이 더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휴전 이후 국제유가가 다소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항공유 가격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전쟁이 끝나더라도 최소 2~3개월은 높은 수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항공사들은 이미 긴축 경영에 들어갔다. 대한항공은 4월부터 비상경영 체제

로 전환해 전사적인 비용 효율화에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재 운용 효율화와 함께 4~5월 창춘·하얼빈·프놈펜·엔지 노선 등에서 왕복 14회를 감편했다. 티웨이항공은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며 인력 운영 조정에 착수했다. 제주항공은 5~6월 인천발 하노이·방콕·싱가포르 노선 등 국제선 110편을 줄였고, 진에어도 4월 일부 국제선 45편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도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국내 항공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항공사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형 항공사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배규한 동원과학기술대 항공모빌리티학부 교수는 "1갤런이 약 3.78리터에 불과한 만큼 대량의 항공유를 사용하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연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유류할증료를 인상하더라도 비용 부담을 모두 상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할증료 급등은 결국 승객 이탈로 이어지고, 항공사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metro

## 유진그룹

### 글로벌 미디어 확대

美 싱클레어와 K-컬처 협력

유진그룹이 글로벌 미디어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낸다. 유진그룹의 미디어 중간지주사 유진이엔티는 미국 최대 지역 지상파 네트워크 기업인 '싱클레어 브로드캐스트 그룹'(Sinclair Broadcast Group·싱클레어)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K-컬처 콘텐츠 확산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싱클레어는 미국 내 86개 권역에서 185개 지상파 방송국을 운영하는 대형 미디어 그룹이다. 최근 국내 주요 방송·미디어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며 미국 내 K-콘텐츠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ATSC 3.0 기반 K-콘텐츠 전문 지상파 채널 'K-Channel 82'를 통해 양방향 서비스와 맞춤형 광고·쇼핑·투표 기능을 결합한 차세대 방송 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K-Channel 82'와 싱클레어의 지상파 방송망을 활용해 뉴스, 교육, 문화, 다큐멘터리, 정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한국 콘텐츠를 미국 시청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 제작을 추진하고, 채널 편성 및 콘텐츠 운영, 스튜디오·제작 협업, 신규 사업 모델 발굴 등 전방위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중소·스타트업에 GPU 264장 공급... AI 전환 지원

(그래픽처리장치)

중기부, 중소기업·스타트업 200장  
6월부터 NHN클라우드 통해 지원  
제조 AX·AI 스타트업 상용화 뒷받침

정부가 중소기업, 창업기업에 그래픽 처리장치(GPU) 264장을 공급해 인공지능(AI) 전환을 돕는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가 AI 프로젝트'를 통해 중기부에 B200 모델 GPU 264장을 배정했다.

중기부는 국가 AI 프로젝트에 ▲중소제조 특화 멀티 AI 에이전트 개발(R&D) 사업 ▲혁신 AI 스타트업(창업기업) 전략 기술 상용화 및 인공지능 전환(AX) 가속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확보한 GPU 가운데 64장은 중소기업에, 200장은 스타트업에 각각 배정한다. 중기부는 GPU 자원을 AI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중기부가 시행 예정인 2개 과제는 공

모 및 선정평가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지원한다. 선정 기업들은 민간 데이터센터(NHN클라우드)와 연계해 센터가 보유한 GPU를 원격으로 이용하는 서비스(클라우드 방식)를 연말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AI 에이전트는 기술기업·제조기업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중소제조 현장의 공정·품질 최적화를 위한 기술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해당 과제를 통해 기술기업·제조기업 컨소시엄은 제조 공정에 대한 AI 학습, 데이

터 확보 및 기술 실증화를 포함한 AI 에이전트 기술개발에 GPU를 활용할 수 있다.

초격차 스타트업에 배정된 200장은 ▲대학·출연연 전문역량과 창업기업 기술을 합친 전략 AI 개발 ▲기업 간 협업을 통해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AI 솔루션 개발에 각 85장씩 지원한다. 과제 내 '모두의 창업'에는 30장을 투입해 예비 창업가의 GPU 확보 문제를 해소한다.

/김승호 기자 bada@

## LS일렉트릭, 데이터센터 훈풍에 최대 실적

북미 매출 80% 늘며 ESS·변압기 성장

LS일렉트릭이 글로벌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LS일렉트릭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 1조 3766억원, 영업이익 1266억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3%, 영업이익은 45% 증가한 수치다.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설비 투자 증가,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북미 사업이 성장을 이끌었다. 1분기 북미 매출은 약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0% 증가하며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북미에서는 데이터센터 마이크로그리드 고객을 대상으로 직류(DC) 제품 수요도 이뤄지며 직류 솔루션 시장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넓혔다.

LS일렉트릭은 초고압직류송전(HVDC), 저압직류배전(LVDC) 등 직류 솔루션 역량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고전력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직류 전력망은 전력 변환 단계를 줄여 손실을 낮출 수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 사업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저압 전력기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과 전력 인프라 투자가 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매출이 확대됐다.

/원관희 기자 wkh@

## 삼양그룹, AI·전기차용 스페셜티 소재 공략

AI 서버용 고내열·모빌리티 선배

삼양그룹이 고충격 실리콘 폴리카보네이트(Si-PC), 인공지능(AI) 서버용 고내열 소재, 전기차 모터코어용 접착제 등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IT와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차세대 산업용 소재 경쟁력을 부각하며 고객사 확대에 힘을 쏟는다는 전략이다.

삼양그룹은 21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러스 2026(Chinaplas 2026)'에 참가해 화학계열사인 삼양사와 삼양이노텍의 스페셜티 소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차이나플러스는 플라스틱·고무 소재와 가공기술의 최신 흐름을 소개하는 산



'차이나플러스' 삼양그룹 부스 전경. /삼양그룹

업 전시회다. 올해는 전 세계 170여개 국가에서 5000여개 글로벌 기업이 참가한다. 삼양그룹은 고객 접점을 넓히고 업계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4년 연속 이 전시회에 참가한다.

/원관희 기자

## 기정원

### 딥테크 배심원 모집

AI·바이오 등 100명 선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5월8일까지 생태계혁신형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의 민간전문가 배심원단을 모집한다.

21일 기정원에 따르면 민간전문가 배심원단은 DCP 평가 과정에 참여해 대면평가 운영 전반을 참관하고 참고 의견을 제시하는 민간 참여 제도다. 인공지능·디지털, 제조·로봇, 제약·바이오, 첨단소재·부품, 탄소·에너지 등 전략분야별 총 10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업 관계자, 투자자(벤처 투자사·창업기획사 등), 기술 전문가, 관련 분야 전공자 등 창업·벤처 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적격 대상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심원단을 최종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과 기정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신 기정원장은 "DCP는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사업"이라며 "민간전문가 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타기 직전까지 끌어올린 반전의 맛

셰프의 킥  
브라운 버터 오일



캐러멜라이즈드  
에니언

벤트치즈번스



스모크  
비프패티

By chef 네비딱한 천재

# 벤트비프버거

단품 8,800원 | 세트 10,700원

LOTTERIA™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트리플A’ 흥행… K-게임, 서구권·대형 프로젝트로 전환

(대규모 개발비·인력 투입한 초대형 게임)

모바일·MMORPG 중심 벗어나  
글로벌 PC·콘솔 플랫폼 시장 겨냥  
붉은사막·스텔라 블레이드 흥행  
리스크에도 트리플A 경쟁 불가피

‘트리플A’ 게임들의 흥행이 이어지고 있어 대형 게임에 대한 향후 투자 확대 기대감도 커진다.

트리플A 게임이란 통상 수백억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개발비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제작하는 초대형 게임을 의미한다. 영화 산업의 ‘블록버스터’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높은 완성도와 글로벌 흥행을 전제로 기획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발 기간이 길고 초기 투자 부담이 크지만, 성공할 경우 장기간 매출을 창출하며 기업 가치까지 끌어올리는 구조를 가진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선보인 트리플A 게임이 연이어 흥행 성과를 내며 산업 구조 변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붉은사막 대표이미지.

/멜버비스

특히 국내 게임업체들은 트리플A 게임들을 통해 모바일·MMORPG 중심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PC·콘솔 시장을 겨냥하고 있어 앞으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붉은사막’은 출시 한달여 만인 20일 기준 PC·콘솔 통합 500만장 판매를 기록했다. 붉은사막은 출시 나올 만에 약 400만장을 판매하며

국내 트리플A 게임 가운데 최단 기간 손익분기점(BEP)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해당 게임의 개발비를 약 1500억에서 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이 같은 흐름은 단일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PC와 콘솔 플랫폼 확장을 통해 누적 판매량 610만장을 넘어섰고, ‘아크 레이드스’ 역시 출시

4개월 만에 1400만장 판매를 기록했다. 복수의 흥행 사례가 이어지면서 트리플A 게임이 국내에서도 실질적인 수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환경도 변화를 뒷받침한다.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콘솔과 PC 플랫폼 이용률이 확대되며 고사양 게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대형 게임이 장기간 매출을 창출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국내 게임사들도 플랫폼 다변화 전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개발 환경 역시 달라졌다. 고성능 게임 엔진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개발 효율성이 개선되면서 과거 대비 대형 프로젝트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글로벌 퍼블리싱 역량 강화도 초기 투자 부담을 분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요 게임사들도 이에 맞춰 대형 프로젝트 준비에 속도를 낸다. 엔씨소프트는 오픈월드 3인칭 슈터 신작 ‘신더시티’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크래프톤은 이영도 작가의 소설 ‘눈물을 마시는 새’를 기

반으로 한 게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IP 확장과 플랫폼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다.

다만 트리플A 게임은 높은 리스크를 동반한다. 수천억원 규모의 개발비와 장기간 제작 일정으로 인해 흥행 실패 시 손실 규모가 크다. 일부 프로젝트는 일정 지연이나 완성도 문제로 출시 전략을 조정하는 사례도 이어진다.

그럼에도 업계는 트리플A 중심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한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모바일 중심 구조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한계가 명확하다”며 “트리플A 게임은 리스크가 크지만 성공 시 기업 가치와 브랜드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대작 게임 성공 사례가 축적될수록 투자자 평가 기준이 빠르게 바뀐다”며 “국내는 서구권 대비 개발비 경쟁력이 있어 해외 자본 유입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 통신3사, ‘월드 IT쇼’서 피지컬AI 기술 공개

SKT 통신 인프라, 지능형 서비스로  
KT, AX 플랫폼 컴퍼니 비전 제시  
LG U+, ‘익시오 프로’ 음성 AI 서비스

이동통신3사가 피지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기술 등을 대거 일반에 공개한다. 이들은 통신기업의 운영 노하우를 집약한 AI 인프라를 공개하며 개인·기업 고객 접점을 전방위로 확장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2026 월드 IT쇼’에 참가한다.

SK텔레콤은 폴스택 AI 역량을 앞세운 차세대 인프라를 약 260평 대규모 공간에 구현한다. 통신 인프라가 지능형 서비스로 진화하는 과정을 네트워크 AI 존에서 체감할 수 있다. 대규모 언어모델(LLM) ‘에이닷 엑스(A.X)’와 함께 정부 주도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진출한 ‘A.X K1’을 공개하는 등 AI 밸류 체인 전반을 선보일 계획이다.

KT는 ‘이음’을 주제로 인공지능전환



월드IT쇼 2026 KT 전시부스.

/KT

(AX) 플랫폼 컴퍼니 비전을 제시한다. 한글 디자인에서 차용한 전시 구성으로 AX플랫폼과 6G 등 혁신 기술 아이템 27개를 선보인다. AI 모델 ‘믿음 K 프로’, 보안·안전 분야 AX 서비스, 기업에 제공하는 맞춤형 AX 컨설팅 등을 소개한다. 6G 공간에서는 네트워크가 스스로 판단하고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를 제공하고, 서비스제공형 로봇(K RaaS)을 통해 기존 시스템을 AI 에이전트로 연계한 산업 현장 사례도 볼 수 있다.

올해 처음 참가하는 LG유플러스는 ‘사람중심 AI’를 주제로 음성 AI 서비스를 공개한다. AI 에이전트 ‘익시오(ixi-

o)’의 진화형 모델 ‘익시오 프로’를 선보인다. 익시오 프로는 음성 인식에서 나아가 발화 내용과 맥락을 분석해 행동을 제안하는 기술이다. 이 밖에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AI 상담 솔루션 ‘에이전틱 AICC’와 기업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온프레미스형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로 18번째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생각을 넘어 행동을 : AI, 현실을 움직인다’란 주제로 열린다. 17개국 460여개 기업이 참가해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최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msjo@

## 일레븐랩스-케어링, ‘AI마음돌봄’ 확대

돌봄 공백 시간에도 정기적 대화  
다국어 서비스로 글로벌 진출 도모

일레븐랩스는 자사 에이전트 플랫폼을 통해 시니어케어 전문기업 케어링과 ‘AI 마음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어르신 돌봄 전문 기업 케어링은 방문 요양과 주간보호센터 모델을 통해 약 1만2000여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60개 센터에서 약 900명의 임직원과 6만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활동 중이다.

일레븐랩스가 케어링에 제공하는 ‘AI 마음돌봄’ 서비스는 요양보호사의 방문 외 시간에 전화를 걸어 돌봄 공백이 생기는 시간에도 정기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일레븐랩스는 돌봄을 제공받는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요양 보호사들의 부담을 줄여 인격적인 관리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레븐랩스는 케어링과의 파트너십

/조민선 기자

을 통해 ▲한국어 품질 구현 ▲저지연 능력 등의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발음과 존댓말, 정서적 따뜻함 등을 제공하고, 천천히 말하는 어르신과 대화가 끊기지 않는 흐름을 유지한다. 이 밖에 헬스케어 환경 내 일관된 성능과 다국어 기반의 장기 확장 가능성도 기대된다.

앞서 케어링은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AI 마음돌봄’ 서비스 현장 검증 단계를 마쳤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1차 파일럿 프로젝트에서는 통화 완료율 100%, 통화 거부율 0%, 평균 4분 22초(최장 10분) 결과를 기록했다. 이어 올해 초 진행된 프로젝트에서는 재참여율 100%를 기록하는 등 가능성을 확인했다.

일레븐랩스는 올해 솔루션 제공을 통해 케어링 스테이 입주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AI 마음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국어 서비스를 기반으로 2027년까지 글로벌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 네이버, 풍력 PPA·발전소 지분 인수 병행

발전법인에 직접 투자

네이버가 GS풍력발전과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거래 계약(PPA)을 체결하고 발전소 지분을 확보하며 에너지 전환 전략을 강화한다.

네이버는 21일 GS풍력발전과 PPA를 체결하고 해당 발전소 지분 30%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RE100 가입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법인에 직접 투자해 전력을 확보한 국내 첫 사례다.

이번 계약 대상인 경상북도 영양군 풍

력발전소는 연간 약 180GWh 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2028년 상반기 상업운전 이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각 춘천 등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29년 기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46%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는 단순 전력 구매를 넘어 발전법인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접 투자 모델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세종 전경.

/네이버

을 통해 에너지 조달 리스크를 줄이고 추가 투자 여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또한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함으로써 전력 공급 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빛나 기자

## 카카오메이커스 10년… 34억 기부 성과

오는 28일까지 캠페인 진행

카카오의 임팩트 커머스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가 서비스 출시 10주년을 맞아 ‘덕분에, 메이커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카카오메이커스는 21일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난 10년간 이용자와 파트너사와 함께 만들어진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공유하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카카오메이커스는 2016년 출범 이후 주된 기반 생산과 가치 소비를 결합한 임팩트 커머스 모델을 운영해왔다. ‘제가버치’, ‘제가버치’, ‘에코씨드’, ‘굿즈포굿’

등 프로젝트를 통해 소비가 사회적 가치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했다.

누적 성과도 공개했다. 올해 3월 기준 누적 주문 고객 수는 약 311만 명, 함께한 제조사 및 창작자 파트너는 8987곳으로 집계됐다. 누적 상품 수는 약 4만2000개, 기부금은 약 34억6000만원에 달한다. ‘제가버치’를 통한 재활용 제품은 약 1598만 개, ‘제가버치’를 통한 농축수산물 판매량은 총 8381톤을 기록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카카오메이커스 담당자 36명이 고객과 파트너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공개하고, MD 추천 상품과 스테디셀러, 인기 아이템을 중심으로 한 큐레이션도 선보인다. /최빛나 기자

# 단일종목 ETF 시대 열린다

## 삼성·하닉 등 2배 베팅 가능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레버리지 허용... ETF 경쟁력 제고  
이르면 내달 22일 상품 상장 전망

국내 자본시장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대가 본격 개막한다. 기존 지수 기반 상품 중심이던 ETF 시장에서 벗어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에 직접 레버리지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시장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ETF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제도는 오는 4월 2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증권신고서 및 상장 심사를 거쳐 이르면 5월 22일부터 실제 상품이 상장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2배)' 도입이다. 그동안 국내 ETF는 분산투자 요건으로 인해 특정 종목 100% 투자 상품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동일 종목 투자 한도가 100%까지 확대되며 구조적 변화가 가능해졌다.

초기 도입 대상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다.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시장 안정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ETF 시장에서도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집중 레버리지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Chat GPT로 생성한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 이미지.

이는 기존 코스피200 등 지수형 레버리지 ETF와 달리, 특정 기업의 주가 방향성에 직접 베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는 투자자는 지수 변동과 무관하게 해당 종목에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이 일반 ETF 대비 훨씬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버리지 구조 특성상 손실도 배수로 확대될 수 있고, 변동성이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음의 복리 효과'로 장기 투자 시 손실이 누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시 기존 교육에 더해 추가 심화교육이 의무화되며, 1000만원 기본예탁금 요건도 적용된다. 또한 상품명에서도 'ETF' 표기를 제한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등의

위험 특성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이 국내 ETF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미국·홍콩 등 해외 시장에서만 가능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가 국내에서도 가능해지면서, 자금 유출을 줄이고 투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투자 양극화 심화와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대형주에 자금이 집중될 경우, 시장 쏠림 현상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고수익·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중심의 숙련된 투자자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정운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 금융투자 민원 급증... 가상자산 1000% ↑

금감원 지난해 금융민원 12만8419건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125.7% 증가

지난해 금융민원이 10% 넘게 증가하며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증권과 가상자산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금융투자 부문이 전체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은 12만8419건으로 전년(11만6338건) 대비 10.4% 증가했다. 금융상담과 상숙인 조회를 포함한 전체 접수 건수는 79만8220건으로 6.4% 늘었다.

민원 증가의 핵심은 금융투자 부문이었다. 금융투자 민원은 1만4944건으로 전년 대비 65.4% 급증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민원이 4491건으로 1000% 이상 폭증하며 전체 금융투자 민원의 30%를 차지했다. 증권(50.9%)과 함께 주요 민원 발생 축으로 떠올랐다.

보험 부문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

지했다. 보험 민원은 전체의 49.0%로 가장 컸으며, 손해보험(19.6% ↑)과 생명보험(12.0% ↑)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면부채 결정 관련 분쟁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은행과 중소서민 금융 민원은 각각 10.2%, 2.9% 감소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은 125.7% 급증하며 금융사고 리스크는 여전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민원 증가에 대응해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분쟁 처리 과정에는 생성형 AI를 도입해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자체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여 민원 발생 자체를 줄이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허정운 기자

## KB증권, 임베디드 금융 비즈니스 고도화

SK플래닛 업무제휴 계약 체결

KB증권은 지난 17일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SK플래닛 사옥에서 SK플래닛과 '임베디드 금융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과 김교수 SK플래닛 사업본부장, 권현정 제휴사업그룹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API 연동 기반 서비스 고도화 및 공동 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휴를 계기로 서비스 구체화를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하고, 향후 다양한 공동 마케팅 및 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SK플래닛의 생활 밀착형 플랫폼에 KB증권의 금융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연계함으로써,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임베디드 금융'은 비금융 플랫폼 내에 금융 회사의 서비스를 결합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양사는 API 연동을 기



지난 17일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SK플래닛 사옥에서 열린 'KB증권 - SK플래닛 업무 제휴 체결식'에서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오른쪽)이 김교수 SK플래닛 사업본부장(왼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반으로 ▲플랫폼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사용자 중심 투자 서비스 구현 ▲데이터 기반 금융 경험 고도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손 그룹장은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금융 서비스의 접점을 넓히고, 고객이 일상속에서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양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결합해 임베디드 금융 시장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 제약·바이오기업, 줄줄이 상장폐지 기로

기술력 바탕 상장... 수익성 도마위  
강화된 퇴출 요건에 업계 위기감 고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잇달아 상장폐지 기로에 서고 있다. 기술력으로 상장 문턱을 넘었던 기업들 역시 실적 부진과 강화된 퇴출 요건에 직면하면서, 바이오 업계 전반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지더블유바이텍, 파랩신, 웰바이오텍, 인트로메디, 제일바이오 등 다수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바이오 기업 중 일부는 기술특례로 상장했으며, 상장 이후 실적 부진과 자본잠식이 이어지면서 퇴출을 겪고 있다.

상장폐지 절차가 본격화됐던 기업 중 제일바이오는 상장폐지 결정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사실 공시 등을 이유로 제일바이오를 상장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지난 2월 23일을 최종 상장폐지 일을 통보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전했다.

더불어 엔케이맥스와 카이노스메드

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삼천당제약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논란도 제약·바이오 업계의 변수가 될 예정이다. 바이오 종목을 상장폐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가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삼천당제약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시장 신뢰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오는 23일 삼천당제약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상장격성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바이오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성이다. 현재 코스닥은 연 매출액 30억원 미만, 법차손 50% 초과,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기술성장 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상장당해 포함해 매출요건 5년, 법차손 요건 3년을 각각 유예받는다.

더불어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바이오 기업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요건의 경우, 올해 30억원에서 2029년 100억원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코스닥의 상장 유지 요건이나 매출액 요건 기간 등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매출 실적을 중점으로 보수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있고, 바이오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연구·개발(R&D) 기간, 수익 실현 기간이 긴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도 "신약 개발 회사들은 창업 후 상당 기간 동안 적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적자 상태로 상장한 회사들이 3~5년 내에 매출과 순이익을 얻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장 유지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공시 기준과 감독 기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엔데믹 이후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우후죽순 시장에 진입한 바이오 기업들을 숙여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기술특례 상장 기업 수는 2020년 25개에서 2021년 31개, 2022년 28개, 2023년 35개, 2024년 42개, 2025년 35개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 삼성글로벌TDF 시리즈, 10주년 특별 이벤트

삼성자산운용 매수 인증시 경품 제공

삼성자산운용은 대표적인 연금 솔루션 상품인 '삼성글로벌액티브적격타깃데이트펀드(TDF)'(이하 '삼성글로벌TDF') 시리즈가 출시 10년을 맞았다고 21일 밝혔다.

TDF는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을 자동배분하는 펀드로, 삼성글로벌TDF는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자동 조절하는 자산배분 펀드다.

이 펀드는 2016년 4월 출시 이후 국내 연금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하

며 퇴직연금 투자자들의 필수적인 자산 배분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은퇴 시점이 멀었을 때는 주식 등 성장 자산 비중을 높이고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채권 등 안전 자산 비중을 높여 수익을 지키는 독자적인 자산 배분 곡선(글라이드 패스)을 운용한다.

삼성자산운용은 삼성 TDF 출시 10주년을 기념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펀(Fun)ETF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매수 인증 등을 하면 푸짐한 경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하은 기자

# 日 친환경 선박 수요 커진다 K-조선기자재 진출길 열려

日 정부 '조선업 재생' 로드맵  
2035년 건조능력 2배 확대 목표  
친환경·디지털 전환 본격화  
日 조선해양 전시회 참가 추진

전통의 조선 강국이었던 일본이 '조선업 재건'을 기치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그간 진입 장벽이 높았던 일본 조선기자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을 위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부산시,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과 함께 22일~24일까지 일본 도쿄 비사이트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 조선·해양 전시회인 '씨 재팬(Sea Japan) 2026'에 참가해 'K-조선기자재 우수제품관(한국관)'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 참가는 일본의 정책 변화와 시장 수요를 반영해, 우리 기업의 일본 조선기자재 시장진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때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했던 일본 조선업은 199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에 밀려 작년 기준 점유율이 5.4%까지 하락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조선업 재건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코트라가 최근 발간한 '일본의 조선업 부흥정책과 진출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선업 재생 로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사 전경.

맵'을 통해 2035년까지 자국 선박 건조 능력을 현재의 두 배인 1800만 총톤으로 확대한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선박의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GX-ETS)가 의무화되면서 일본 조선사와 선주들은 수소·암모니아·LNG 추진 시스템 및 탄소배출 저감 장치 등 친환경 기자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조선소들이 직면한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 부족과 설비 노후화도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 요인이다. 일본 현지에서는 ▲로봇 도입 및 생산 자동화 ▲자율운항 기술 ▲데이터 공유 솔루션 ▲유지보수 간편화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 한국관에는 AI 기반 선박 안전관리, 친환경 선박기자재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유망 기업 20개사가 참가한다. 이들은 사전 발굴된 일본 바이어와의 1대 1 B2B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 계약 체결에 나설 예정이다.

코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일 양국이 선박 건조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지만, 기자재 분야에서는 DX·친환경 기술을 중심으로 협력 여지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차세대 선박 분야의 데이터 표준화와 공동 실증 등에서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목 코트라 부사장 겸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작년 말 일본 정부가 발표한 조선업 재생 로드맵은 한일 양국이 글로벌 해양패러다임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비즈니스 교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 참가를 시작으로 K-조선기자재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장 분석 정보가 담긴 보고서는 코트라 해외경제정보드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 전기차 신규등록 10만대 조기 돌파

기후부, 유가 폭등에 전기차 선호 뚜렷  
올해는 '전기차의 연간 신규 등록대수 10만대' 정부 목표가 조기에 달성됐다.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도 100만대를 넘어섰다.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폭등으로 전기차 선호가 두드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조사 간 가격결합인 경쟁, 정부의 내연차 전환지원금 등도 영향을 미쳤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가 10만 6939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차종별로 전기승용 9만 1373대, 전기승합 311대, 전기화물 1만 5091대가 보급됐다.

이는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전기차가 보급된 지난해와 비교해도 약 3개월 빠르다.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는 3월까지 8만 3533대였으나 4월 셋째 주까지 2만

3406대가 추가로 보급되며 10만대를 초과했다.

또 3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98만 1321대였으므로, 전기차 총 등록대수도 지난 15일 기준 100만대를 돌파한 상황이다. 올해 3월까지 전기차의 신차 비중은 41만 5746대 중 8만 3533대로 20.1% 수준이다.

지방정부에서도 준비한 전기차 보조금 1차 공고 물량이 소진되며 신청·접수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지방정부에서 추가 편성을 통해 2차 공고를 실시하고 접수를 재개하면 보급사업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기후부는 소비자들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송미령, 베트남과 농업협력 강화 나선다

(농식품부 장관)

베트남서 신임 장관과 협력 확대 협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23일(현지시간) 사흘간 베트남을 찾아 상대국과 '농업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K-푸드'의 현지동향' 등도 짚어 볼 예정이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날 초 취임한 쩌 빈엠흥(Trinh Viet Hung) 농업환경부 장관을 만나 축하인사를 전하고, 양국의 농업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가 농업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지원했던 베트남 국립 가축질병진단센터 현장도 방문한다. 이 자리에선 베트남 측으로부터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 발전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또 현지에서 진출한 주요 K-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외식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이어



지난해 3월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저장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베트남 진출 기업의 급식장소를 찾아 K-식재료의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베트남은 K-푸드 수출 및 K-외식기업 해외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우리나라는 베트남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중부발전,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성과 알린다

'2026 K-GX 국제주간' 참가  
녹색기술 지원·체험형 부스 운영

한국중부발전은 4월 20일~25일까지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6 K-GX(녹색대전환) 국제주간·기후변화주간' 행사에 공식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UN, 주요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제적 규모의 행사다. 현장에서는 개회식을 비롯해 UNFCCC 회의, 에너지 전환 정책 대화 등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된다. 중부발전은 이번 행사에서 '탄소중립

실현, 기술과 실천으로 완성'을 주제로 홍보 부스를 운영, 기관의 경영 비전인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선보였다.

특히 에너지 전환 로드맵 제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사업 성과 등을 내외에 널리 알리는 한편, 현금 포인트 지급형 페페트병 자동수거기 소개 등 자원순환 체험 위주로 부스를 구성해 시민들이 탄소 감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행사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중부발전 오영철 처장은 김성환 기후부장관과 함께 기후변화주간 홍보 부스 투어를 진행하며 중부발전의 에너지 전

환 정책과 녹색 기술 지원 의지를 설명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행사 참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탄소중립 이행 성과와 미래 에너지 전환 전략을 국제 무대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술 혁신과 국민 참여를 결합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발전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해 수소 전·혼소 발전, 해상풍력 등 미래 에너지 기술 실현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서부발전, 에너지절약·지역상생 캠페인

지역 식당과 연계해 생활 속 절약 실천  
다회용 앞치마 배포 등 친환경 확산

한국서부발전이 중동 사태에 따른 연료 수급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추진한다.

서부발전은 지난 20일 본사가 소재한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지역 식당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을 진

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부발전 임직원들은 이날 태안읍 일대 식당을 찾아 '에너지 절약 국민 행동 요령'이 인쇄된 다회용 앞치마를 전달하고 식당 이용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홍보했다.

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 취지에 맞춰 지역 식당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회용 앞치마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지역 식당을 이용해 지역경제에 실제 도움을 주면서 에너지 절약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식당과 연계해 이뤄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서부발전은 정부의 구내식당 휴무제 취지에 맞춰 지역 상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휴무 운영을 확대한다. 임직원의 외부 식당 이용을 유도해 지역경제와의 상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세종=한용수 기자

## 농민 2만명 "농협법 개정안 다시 논의하라"

전국 조합장·농업인 여의도 결의대회

회장 간선제 폐지 후 직선제 전환 등 '농협법 개정안' 관련해, 농업인들까지 국회와 정부에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업인 2만여 명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민들은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5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이다.

이들은 최근 전국 조합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농

협중앙회장 선출시 전국 조합원 대상의 1인1표제에 대해 조합장 96.1%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농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반대 96.8%), 외부 감사기구 설치(반대 96.4%) 등 주요 쟁점에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박경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농협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국의 농민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국회 앞에 모인 것은, 농협의 자율성 상실이 곧 농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2만여 명의 결집은 농협 자율성 수호를 위한 현장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농협의 주인은 정부가 아닌 조합원"이라고도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 생산부터 창업까지... '해남형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

올해 스마트윈에단지 기반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도 연계 추진  
고부가가치 품목 다변화 도모  
스마트 저장·물류체계로 경쟁력 ↑

해남군은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청년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해남형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한다.

핵심 사업은 삼산면 일원 농업연구단지 조성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다. 오는 2029년까지 총 18.6ha 규모로 조성하게 되며, 주요 시설로는 ▲ 임대형 스마트팜 ▲ 스마트 APC(농산물 산지유통센터) ▲ 채소류 종자생산단지 ▲ 기업 연계형 과수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국비 공모사업과 연계해 재정 부담은 낮추면서, 생산·유통·교육·창업이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미래형 농업 거점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총 103억원 사업비 중 국·도비 52억원을 확보해 올해 스마트윈에단지 기반 조성에 착수하며, 총 200억원 중



해남군 신청사.

/해남군

국·도비 130억원을 확보해 오는 2027년부터는 4ha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연계 추진하게 된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농들에게 현장 실습과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단지 내 기후변화대응센터 및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와 연계해 아열대 작물 등 고부가가치 품목 다변화를 꾀하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저장·물

류 체계를 구축해 유통 경쟁력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나아가 해남군은 농업연구 1·2·3단지 전체(약 55ha)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육성지구로 지정되면 인허가 간소화와 공유재산 특례 등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져 민간 투자와 관련 기업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해남군은 올 하반기 착공하는 국립 기후변화대응센터를 비롯해 전라남도

특화과수지원센터, 농업연구 1, 2, 3단지 등 연관시설을 집적화해 국내 최대 규모 군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총 82ha 규모로, 1단지에는 고구마 연구센터와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과학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등이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이다.

군은 농업연구단지의 본격 조성과 가동을 통해 노지 중심의 농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청년농 확대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대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 농업은 청년이 돌아오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전략"이라며 "국도비 비중을 높인 단계적 추진을 통해 군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부터 유통, 창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농어촌수도 해남의 모델을 완성해 대한민국 미래 농업의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metroseoul.co.kr



metro

## 지역 이모저모

### 울산시

#### 6개월간 대중교통비 환급 강화

울산시가 정부의 '모두의 카드' 한시 확대 시행에 발맞춰 추경을 통해 시비를 긴급 투입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월 대중교통비 지출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의 기준금액이 50%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일반은 기준 5만 5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청년·2차녀·어르신은 5만원에서 2만 3000원으로, 3차녀 이상·저소득층은 4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 부산시

#### 반려문화공원 행안부 심사 통과

부산시가 추진하는 전국 최대 규모 반려문화공원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공원은 기장군 철마면 구철리 일원 24만 1000㎡ 부지에 시비 433억원을 들여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동감문화센터, 동감둘레길, 글로벌테마정원, 동감놀이터, 펫교육장, 반려식물원, 로컬마켓거리 등 반려문화 특화 시설이 들어서며 교육·체험·휴식·치유 기능을 한데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진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경남도

#### 소방차량 접근 내비게이션 안내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긴급 출동하고 있는 소방 차량의 접근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긴급차량 접근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도로 주행 중 후방에서 소방 차량이 접근할 경우 출동 상황과 거리 정보를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으로 즉각 안내하는 방식이다. 운전자는 팝업과 음성 알림을 통해 소방차량 접근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빠르게 진로를 양보할 수 있다. 교차로에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작동 여부까지 함께 안내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경북도

####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 완료

경북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해 총 3575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 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 낙석, 전도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번 점검은 사면과 급경사지, 저수지, 용벽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공무원과 공사·공단, 민간전문가 등 1873명이 참여해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 영양군, '교통 사각지대' 탈출한다 국도31호선 선형개량공사 본격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최종 개찰  
청송 진보~영양 입암 국도건설공사  
2033년까지 국비 1068억 투입

경북 영양군의 숙원 사업이자 '교통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인 국도 31호선(입암~영양) 선형개량공사가 본격적인 시공 단계에 접어들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7일 조달청에 의뢰한 '청송 진보~영양 입암 국도건설공사'의 사업 입찰이 최종 개찰을 완료되었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중 하나로 2026년 초에 설계를 마무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영양군의 고립된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국도 31호선 영양 구간 중 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 환경이 열악한 영양읍 감천리 구간과 입암면 노달리에서 산해교차로 구간을 비롯하여

청송군 진보면 월전삼거리에서 방전리까지 3개 구간의 총 5.43km를 대상으로 하며, 2026년부터 시작되어 2033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총 1068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감천리 구간과 삼산리 구간의 절개사면을 지나는 국도의 선형을 개량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 구간들은 낙석 위험과 상습적인 도로 침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왔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영양군은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4차로 도로, 고속도로, 철도'가 모두 없는 이른바 '3無 지역'으로 불리며 극심한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선형개량사업은 이러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로교통시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포항시, (주)비케이엠솔과 83억 투자 '맞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합금분말·선재 제조공장 조성

포항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20일 (주)비케이엠솔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투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첨단 제조공정용 금속소재와 고부가가치 선재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투자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주)비케이엠솔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83억원을 투자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합금분말 및 선재 제조공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기업은 포항테크노파크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금속소재 연구개발을 이어오며 차별화된 공정 기술을



포항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주)비케이엠솔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투자 유치를 위한 서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서현준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장, 최원수 비케이엠솔 대표이사, 강상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

확보해 왔다. 특히 고압 가스를 이용해 용융 금속을 미세 입자로 분사하는 가스아토마이징 공정을 적용해 균일한 입도 분포와 높은 구형화율, 우수한 산화 저항성을 갖춘 금속분말을 생산하고 있다. /포항(경북)=김진근 기자 jingon@

## 전남도, 천년사찰 5곳 명상관광 거점 육성

지역 축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전남도가 지역의 유서 깊은 사찰을 세계적 명상관광 거점으로 키우는 전남 천년사찰 세계명상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사업 대상지로 담양 용흥사·고흥 능가사·장흥 천관사·장성 백양사·완도 신흥사 등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사찰마다 지역 축제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전남형 명상관광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담양 용흥사는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중심으로 차명상, 달피 수바래길 걷기명상, 스님과 차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담양대나무축제 등과 연계해 5~

10월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고흥 능가사는 '남도 천년사찰, 명상 여행 해봐'를 주제로 싱잉볼 사운드 테라피와 해변 행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고흥유자축제와 접목, 8~12월 운영한다.

장흥 천관사는 '천관사 마인드 리트릿'(Mind Retreat)을 내걸고 동백숲 걷기 명상 등을 추진한다. 8~12월 관광객을 맞는다.

장성 백양사는 참사람 가행정진, 다도명상, 호흡명상, 사찰음식명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백양사 얘기단풍페스티벌과 연계해 10~11월 운영한다.

완도 신흥사는 정적 명상과 동적 치유활동을 함께 구성했다. 해양치유센터 체험, 청정완도 가을섬 여행과 접목, 6~12월 진행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봉화군, 6개 시군 연계 '미션 챌린지 투어'

외부 관광객 유치 공동 프로젝트

프로젝트다.

봉화군이 중부내륙 지역과 연계한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여행과 소비를 결합한 미션 수행 방식으로 지역 체류 시간을 늘리고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봉화군은 영주와 단양, 제천, 영월, 평창과 함께 '중부내륙 6개 시군 미션 챌린지 투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역 간 관광 자원을 연계해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프로그램은 타 지역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6개 시군을 여행하며 인증사진과 소비영수증 제출 등을 수행해야 한다. 방문 지역 수에 따라 최대 30만원 상당의 특산품이 제공된다. 운영 기간은 11월 29일까지다.

참여 절차는 사전 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행 전 온라인을 통해 일정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미션 수행 결과와 함께 경품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봉화(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전 세계 휩쓴 ‘불닭’... 삼양식품, 창사이래 최대 실적 질주

美·유럽 등 글로벌 진출 견결음  
월간 라면 수출액 1억 달러 돌파  
1분기 매출 두자릿수 증가 전망

삼양식품이 전 세계적인 ‘불닭’ 열풍에 힘입어 창사이래 최대 실적 경신을 예고하고 있다. 단일 기업으로는 최초로 월간 라면 수출액 1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던 가운데, 북미와 유럽은 물론 일본 시장까지 정조준하며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증권가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4% 증가한 6845억 원, 영업이익은 23.9% 늘어난 166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가파른 성장세는 지난해 완공된 경남 밀양 2공장의 가동률 상승이 견인했다. 공급 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달러 강세에 따른 고향을 수혜까지 더해지며 수익 구조가 더욱 탄탄해졌다는 분석이다. 삼양식품은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므로 달러 강세는 영업이익률 개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증권가는 삼양식품이 올해 연간 매출 3조 193억 원, 영업이익 7086억 원을 달성하며 ‘매출3조·영업익 7000억’ 시대를



불닭볶음면 라인업.



삼양식품 브랜드 ‘불닭’을 접목한 리얼리티 쇼 ‘히트매치’ /삼양식품

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출 데이터는 더욱 놀랍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삼양식품의 주요 생산 거점인 밀양·원주·익산 지역의 라면 수출액은 총 1억 297만 달러(약

1400억 원)를 기록했다. 단일 품목으로 월 수출 1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국내 식품업계 최하다.

특히 전체 라면 수출의 약 60% 이상을 삼양식품이 책임지며 K-푸드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품질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이며, 유럽 시장은 네덜란드 판매법인을 통한 유통망 일원화 효과로 전년 대비 140% 이상의 고성장이 기대된다. 중국 역시 춘절 이후 수출량이 40% 이상 급증하며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삼양식품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브랜드 팬덤 형성을 위한 파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데이팅 리얼리티

쇼 ‘히트 매치(Heat Match)’를 공개했다. 출연자들이 불닭의 매운맛을 함께 즐기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통해 현지 젊은 세대(MZ)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또한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와 연계한 파트너십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한 글로벌 캠페인 ‘하터 댄 마이 엑스(Hotter Than My EX)’의 뮤직비디오는 공개 2개월 만인 지난 17일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인기 K-팝 그룹 ‘보이넥스트도어’가 출연하고 멤버들이 직접 곡 작업에 참여한 이 영상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당당함’이라는 메시지

를 불닭의 매운맛에 투영해 글로벌 MZ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캠페인과 함께 선보인 신규 캐릭터 ‘페포’ 또한 브랜드의 새로운 활력소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최근 유럽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유통망을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 물류 효율성과 시장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일본의 경우, 세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아마존재팬’에서 공격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일본 특유의 ‘조금 더하기(양념 추가)’ 문화를 겨냥해 스틱형 소스가 포함된 한정 세트를 출시하고, 타 임세일을 통해 온라인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 라인 확대도 순조롭다. 현재 2교대 가동 중인 밀양 2공장은 상반기 내 전 라인 가동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자동화율이 높은 신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갈수록 수익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불닭 브랜드의 독보적인 제품력과 강화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음식을 넘어 한국의 식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2026 슈퍼해피 외관

/롯데백화점

## 롯데百, ‘슈퍼해피’ 테마 변신

가정의 달 맞아 할인·전시 등 마케팅  
황금연휴 기간 ‘기프트 하우스’ 팝업

롯데백화점이 4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점을 ‘슈퍼해피(SUPER HAPPY)’ 테마로 꾸미고 가정의 달 마케팅에 돌입한다.

‘고객의 일상에 행복을 더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시그니처 테마 행사로 올해는 글로벌 그래픽 아티스트 VERDY와 협업해 전점 비주얼과 콘텐츠를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이번 ‘슈퍼해피’는 롯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롯데뮤지엄 전시와 연계해 기획됐다. VERDY의 전시 ‘I Believe in Me’와 연결된 ‘Love Around Us X I Believe in Me’ 콘셉트를 백화점 공간 전반에 적용했다.

쇼핑 혜택도 대폭 강화했다. 5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깡 없는 러브 드로우’ 이벤트를 연다. 같은 기간 엘페이(L.pay)로 15만 원 이상 단일 브랜드 결제 시 엘포인트 7000점을 추가 적

립해 준다.

온·오프라인 연계 이벤트도 마련했다. 롯데백화점 앱에서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롯데백화점’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국 53개 점포를 모티브로 한 게임형 콘텐츠로, F&B 50% 할인 쿠폰, 아울렛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완주 고객 중 1명을 추첨해 100만 원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경품도 걸었다.

황금연휴 기간을 겨냥한 팝업도 이어진다. 잠실점에서는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시시호시와 김참새 작가 협업 ‘기프트 하우스’ 팝업을 선보인다. 본점 코스모너지 광장에서는 ‘레고 플레이 페스티벌’ 팝업을 열고 주요 제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롯데뮤지엄에서는 VERDY의 첫 미술관 개인전 ‘I Believe in Me’가 7월 19일까지 열린다. 대형 조각, 드로잉, 네온 작품 등 250여 점을 선보이며, 작가의 실제 작업 공간을 재현한 ‘VERDY 스튜디오’도 운영한다.

/신원선 기자

## 농심 “몽탄에서 짜파게티 시켜보세요”

특별 메뉴 ‘몽탄 짜파게티’ 판매

농심이 서울 3대 고깃집으로 유명한 ‘몽탄’에서 특별 메뉴 ‘몽탄 짜파게티’를 선보인다. 이번 협업은 라면을 활용한 미식 프로젝트 ‘2026 농심면가’의 일환으로 농심 짜파게티의 매력을 외식 메뉴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농심면가의 대표 다이닝으로 선정된 몽탄은 짚불 우대 갈비와 향정살로 유명한 고깃집이다. 짚불 훈연을 활용한 독창적인 메뉴와 완성도 높은 맛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몽탄 짜파게티’는 농심 짜파게티에 몽탄의 상징적인 레시피를 더해 재해석한 메뉴다. 짜파게티 특유의 짜장 소스에 전라남도 무안군 특산 양파를 짚불 훈연해 만든 몽탄의 시그니처 스모크 휘핑크림과 스모크 대파 오일이 더해졌다. 여기

## 컬리, 굿프라이스 기획전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는 고물가 시대에 장보기 부담을 덜어줄 실속형 기획전 ‘굿프라이스’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신선식품부터 간편식까지 총 500여 개 상품을 최대 33% 할인한다. 오직 컬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컬리온리’ 상품 중에서도 인기 상품만을 엄선해 가격은 낮추면서도 품질은 높였다.

간편한 한 끼를 책임져 줄 가정간편식(HMR)도 다채롭게 준비했다. ‘차려낸’의 국내산 닭가슴살 치킨너겟과 ‘탄탄면 공방’ 오리지널 탄탄면, ‘베키아에누보’ 루콜라 발사믹 햄치즈 치아바타 샌드위치 등을 제안한다.

/신원선 기자

## 엔제리너스 ‘아메리치노’ 라인업 확대

롯데GRS가 운영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엔제리너스가 브랜드의 상징이자 국내 커피 시장에 ‘쿨링 크레마 커피(폼커피)’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아메리치노’의 출시 11주년을 맞아 라인업을 강화한다.

클래식 라인의 ▲아메리치노는 11년간 사랑받은 원조의 맛으로, 에스프레소 거품의 층이 만들어내는 깊고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아메리치노 라떼는 부드러운 거품에 우유의 달콤함을 더해 최상의 밸런스로 구현한 정통 라떼이다. 크러쉬 라인의 ▲아메리치노 크러쉬 ▲아메리치노 밀키크러쉬는 ‘따뜻한 냉커피’라는 별명의 아메리치노 리뉴얼 버전이다.

/신원선 기자

## 쿠팡이츠, 청량리 전통시장 매출 50% UP

‘우리동네 전통시장’ 기획전 성과

쿠팡이츠가 지난 3월 시작한 ‘우리동네 전통시장’ 기획전 프로젝트의 1호 시장인 청량리 전통시장 매출이 한달 새 50% 이상 뛰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동네 전통시장’ 기획전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우수 상품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청량리시장을 1호 대상으로 선정해 통



‘몽탄 짜파게티’ 메뉴 이미지 /농심

에 농심 스낵 ‘알새우칩’을 잘게 부순 크럼블을 토핑으로 올려 쫄깃한 면과 어우러지는 바삭한 식감이 더해졌다.

몽탄 짜파게티는 오는 5월 14일까지 몽탄 전 지점(서울 삼각지 본점, 제주 애월점, 제주 구좌점)에서 판매된다. 메뉴 주문 시 탄산음료 ‘웰치스 제로 오렌지’를 함께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닭 골목과 족발·보쌈 골목, 순대국·해장국 골목 등 대표 먹거리 매장은 물론 반찬류, 신선한 과일·채소, 제철 수산물 등 장보기 매장까지 폭넓게 참여시켰다. 그 결과 행사 기간 주문 기준 입점 매장의 쿠팡이츠 매출이 2월 대비 약 54% 증가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지역 전통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약가 우대 문턱 높아지자... 제약업계, R&D 체질개선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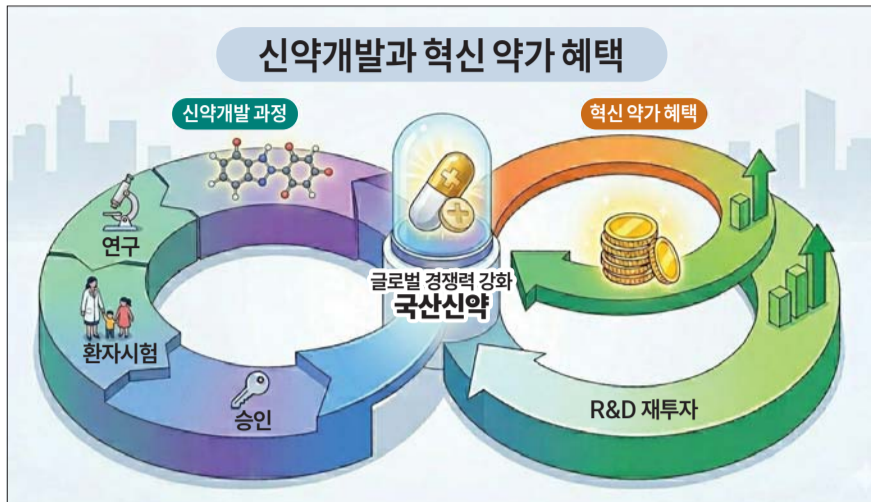
메디톡스, 글로벌 임상역량 강화 SK바사, 연구지원 조직 재정비 일동제약, 유노비아 흡수합병 결단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 연구개발 조직을 정비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정부가 혁신형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약가 우대 혜택을 적용하는 정책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업계의 'R&D 체질 개선'이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2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일동제약 등 전통 제약사부터 메디톡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기업까지 인적 쇄신에 나선 모습이다. 특히 글로벌 임상이나 인허가 역량을 갖춘 베테랑을 전면 배치해 R&D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정부는 최근 혁신형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 방향을 설정하며 R&D 투자 비율 기준을 각각 2%p씩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다.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은 기존 5%에서 7%로, 1000억원 미만 기업은 7%에서 9%로 기준이 높아진다.

지난 1일 메디톡스에 글로벌 임상 전문가 이태상 상무가 임상 개발본부 총괄 이사로 합류했다. 이상무는 한국안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미국, 유럽 등에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쇄신과 투자가 맞물리고 있는 모습. /제미니AI 생성 이미지

서 신약 프로젝트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 차세대 특신제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이는 메디톡스 매출 성장세에 발맞춰 R&D 질적 향상을 꾀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연간 매출 247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8% 증가한 실적으로 3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다. 이와 함께 R&D 투자 비중도 키웠다.

지난해 집행한 연구개발비는 전년 397억원에서 469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매출 대비 비중은 17.38%에서 18.97%로 확대됐다. 이중 매년 인건비는 160억원 규모를 차지해 핵심 연구 인력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 순위인 것

로 나타났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6일 마상호 부사장을 연구지원실장으로 신규 영입했다. 마 부사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GC녹십자, JW중외제약 등을 거친 연구사업관리 전문가다. 또 회사는 연구지원실 산하에 연구기획팀, 바이오 규제관리팀, 비임상지원팀 등도 설치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R&D 프로젝트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이미 23.9%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연간 매출은 6514억원, 연구개발비는 1558억원이다.

특히 정부지원금 및 외부지원금을 차감한 후의 회계처리 내역을 살펴보

면, 개발비(무형자산)로 집계된 금액이 약 582억원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자산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과격적인 행보를 보인 곳은 일동제약이다. 지난 1일 동아에스티 최고 과학책임자(CSO) 출신 박재홍 박사를 새 R&D 본부장(사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신약 연구개발 계열사 '유노비아'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 2023년 11월 유노비아 분사 후 2년 5개월 만의 결정이다.

일동제약은 2023년 6007억원, 2024년 6149억원, 2025년 5669억원 등의 매출을 냈다. 2023년 영업손실 539억원은 2024년 영업이익 131억원, 2025년 영업이익 195억원 등으로 흑자전환했다.

다만 연구개발비는 2023년 974억원, 2024년 94억원, 2025년 366억원 등이며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각각 16.03%, 1.54%, 6.54% 등으로 변동됐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정책 변화는 더 많이 그리고 더 제대로 투자하라는 신호일 수 있다"며 "기준치 충족을 넘어 얼마나 전문적으로 얼마나 실질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관리해 약가 보상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가 기업 가치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 유한양행

### AI 원격 모니터링 상용화

일반병동까지 심전도 감시 확대

유한양행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이노와 함께 인공지능(AI) 원격 시스템 '메모 큐'를 상용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메모큐 공급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이뤄졌다. 심장 모니터링이 필수적인 주요 진료과를 중심으로 약 100개 병상에 적용된다.

메모 큐는 입원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의료진의 신속한 판단을 지원한다. 기존 중환자실 중심의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을 일반 병동까지 확장할 수 있어 환자 안전 관리 전반에서 효율성을 높인다.

또 별도 통신망 공사 없이 병원 내 기존 와이파이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즉시 도입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초소형 웨어러블 심전계 '메모 패치 M'은 환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제세동(전기충격) 보호 회로가 적용돼 치료 에너지의 99% 이상을 환자에게 전달하면서도, 충격 직후 5초 이내 측정을 재개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510(k) 승인을 받았고, 국제 의료기기 안전 규격(IEC 60601-1)상 최고 전기적 안전 등급인 'Type CF Defib-proof'도 획득했다. /이청하 기자

# 삼성바이오에피스, 항암신약 'SBE303' 첫선

넥틴-4 표적 ADC 데이터 공개 피부 독성 개선·ILD 미관찰 미국·한국서 글로벌 1상 착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17~22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되는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6) 연례 학술대회에서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SBE303'의 연구 데이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17~22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되는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6) 연례 학술대회에서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SBE303'의 연구 데이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SBE303은 종양세포에서 과발현되는 넥틴-4 단백질 표적을 표적으로 한 차세대 ADC 항암제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에 따른 국내외 파트너사(韓 인투셀, 中 프론티라인)와의 공동 연구 및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개발

전(前)임상 결과에 따르면, SBE303은 기존 넥틴-4 표적 치료제 대비 항체의 종양세포 결합 특성과 세포 내 약물 전달 효율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안전성 평가 부분에서 기존 넥틴-4 표적 치료제의 흔한 이상반응인 피부 독성 시험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였으며, 심각한 부작용으로 비가역적 손상을 일으키는 간질성 폐질환(ILD)도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체내 독성 반응이 관찰되지 않는 최대 투여량인 '최대 내약 독성용량(TIN STD)'은 40 mg/kg으로 나타났으며, 넓은 치료 안전성 확보를 통한 SBE303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상의학본부장 신동훈 부사장은 "이번 연구 결과로 당사의 항체 의약품 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SBE303의 후속 임상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보유한 차세대 ADC 항암제 개발로 다양한 의료 미충족 수요 해소의 가능성을 지속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한국 등에서 SBE303의 글로벌 임상 시험(1상)을 본격화했으며, 올해 3월부터 2030년 7월까지 진행형 불응형 고형암 환자 149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 및 초기 유효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 애경산업

### 시그닉, 티몰·도우인 입점 중국 온라인 판로 확대

애경산업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 티몰과 도우인에 스킨케어 브랜드 '시그닉'이 각각 입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그닉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먼저 공개한 2535 글로벌 소비자 맞춤형 브랜드다. 효과적이면서도 빠른 피부 관리가 가능한 고기능성 성분과 효능을 갖췄다. 이번에는 피부 탄력 위한 바운스 업 크림, 주름과 탄력에 동시 관리하는 더블 이펙트 세럼, 모공 속 노폐물을 없애고 피부 결을 개선하는 '포어 리뉴 패드' 등 3종을 선보인다.

애경산업은 향후 징둥, 쿠팡 등 중국 온라인 유통망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중국 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샤오홍슈에서 왕홍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를 공개하는 등 현지 Z세대 소비자와 적극 교류했다. 왕홍은 중국에서 인플루언서를 일컫는다.

시그닉 브랜드 관계자는 "시그닉은 온라인 플랫폼 친화적인 비주얼과 글로벌 Z세대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챗봇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있다"며 "올해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시작으로 채널을 지속 넓혀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LG화학, 성장호르몬 '유티로핀에코펜48' 셀트리온, 日서 스테키마 적응증 확대

첫 카트리지 교체형 제품 선보

LG화학은 성장호르몬 브랜드 '유티로핀'에서 첫 주사액 카트리지 교체형 제품으로 '유티로핀에코펜48(에코펜)'과 에코펜 전용 주사액 '유티로핀 카트리지주48IU'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에코펜은 기존 일체형 제품인 '유티로핀에스펜주'와 달리 사용자가 전용 카트리지인 '유티로핀카트리지주48IU'를 주사기에 결합·교체하며 펜 디바이스를 다회 사용하도록 설계한 제품

이다. LG화학은 장기간 반복되는 주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심리적, 물리적 부담을 줄이는데 디바이스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분석해 약물전달 디바이스 전문 회사인 스위스 입소메드와 협업했다. 편안한 주사 치료를 위해 손의 압력이 아닌 스프링을 활용한 반자동 주사 주입 방식을 도입했다. 작은 손의 아이들도 손쉬운 자가주사가 가능하다. 주사 버튼의 길이도 투약 용량과 관계없이 3mm로 고정시켜 낮은 주사 압력이 일관되게 유지된다. /이청하 기자

후생노동성서 정맥주사 제형 품목허가 셀트리온은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성분명: 우스테키누맵)' 정맥주사(IV) 제형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번 스테키마 IV 제형 허가를 통해, 기존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을 적응증으로 하는 피하주사(SC) 제형에 이어 크론병(CD) 적응증을 추가 확보하며 치료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투여 환경과 환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방이 가능해졌다. /이세경 기자

일본 우스테키누맵 시장은 염증성 장질환(IBD) 영역에 전체 매출의 약 97%가 집중돼 있다. 그 중 약 절반을 차지하는 CD 적응증 확보로 고수요 시장으로 평가되는 IBD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진 만큼 회사는 점유율 확대에 한층 속도를 낼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허가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 허가도 추가해 '풀라벨(Full Label)' 제품으로 일본 내 우스테키누맵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 아, 오늘이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구나. ”

뮤직드라마

# 불편한 편의점 2

Always

2026.4.1 - OPEN RUN 후암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2)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박예슬 | 연출 승운 | 작곡·음악감독 서진영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주관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 문의 02-332-4902



**중기중앙회, 'KBIZ AMP 20기' 6개월 과정 시작**  
중기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인 'KBIZ AMP (Advanced Management Program of SMEs) 제20기'가 지난 20일 입학식을 갖고 6개월간 일정에 들어갔다. 2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KBIZ AMP는 중기중앙회가 2008년 개설한 중소기업 CEO 특화과정으로, 정부·국회·유관기관은 물론 전국 891개 업종별 협동조합과 223만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정책·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중기중앙회



**HK이노엔, 서울대공원 레서판다 먹이숲 조성**  
HK이노엔이 지난 18일 경기 과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에서 '레서판다 먹이숲 조성 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HK이노엔 임직원과 가족 60여 명은 서울대공원 레서판다 동물사 내에 대나무 종류인 청죽과 산죽(조릿대) 270여 그루를 식재했다. /HK이노엔



**동아오츠카, '장애인의 날' 맞아 복지지원금 전달**  
동아오츠카는 전날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스포츠 후원과 함께 저사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가족을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복지지원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아오츠카는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높이고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종목에서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동아오츠카



**동서식품,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  
동서식품이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한 '제27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 조선 서울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오른쪽부터) 우승자 변상일 9단, 동서식품 김광수 사장 등 대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동서식품



**신한은행-OCI홀딩스, 미래성장사업 금융지원**  
신한은행은 OCI홀딩스와 '생산적 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 동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반도체·첨단소재를 비롯한 미래 성장사업과 글로벌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 관련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에 대한 금융 지원과 주선을 추진한다. (왼쪽부터)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 삼성전자·LG전자, '밀라노 디자인위크' 동시 출격

**삼성전자, AI 시대 디자인 선행 AI 동반자 콘셉트 기기 첫 공개**  
**LG전자 'SKS', 유럽본격 진출 신제품 '트라체' 캡슐 컬렉션 눈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디자인 행사 '밀라노 디자인 위크(Milan Design Week) 2026'에 나란히 출전했다. 삼성전자는 AI 시대의 인간 중심 디자인 철학을 LG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빌트인 라인업을 전면내내세우며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 AI·감성 결합 디자인 전면**

삼성전자는 슈퍼스튜디오 피우(Superstudio Piu)에 12개 몰입형 공간으로 구성된 '삼성 디자인 오픈랩'을 열었다. 실험적 미래 콘셉트와 최신 제품 등 120여 점의 디자인 자산을 전시하며 'AI 시대의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전시의 핵심은 'AIX (EI+HI)' 공식이다. AI의 가치가 인간의 감성 지능(EI)과 의도(HI)와 결합될 때 비로소 증폭된



20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밀라노 디자인위크 2026'에 참가한 삼성전자 부스의 아날로그 감성을 디지털로 확장한 공간에서 사운드가 어우러져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삼성전자

다는 철학으로, 단순 기능 경쟁을 넘어 기술의 감성적 공명을 강조한다.

이번 행사에서 처음 공개된 'AI 동반자' 콘셉트 기기 '프로젝트 루나(Project Luna)'도 눈길을 끌었다. 둥근 디스플레이와 움직이는 헤드를 갖춘 소형 기기, 스마트폰 등 특정 기기에 AI를 가두지 않고 가정 내 여러 기기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공유형 AI(Communal AI)' 개념을 형상화했다. 갤럭시 폴더블폰 아트월, 투명 스피커, OLED TV(S95H), 130인치 마이크로 RGB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감성이 어우러진 공간을 연출했다.

삼성전자 DX부문 최고 디자인 책임자(CDO) 마우로 포르치니 사장은 "사람의 의도와 공감, 상상력이 결합된 디자인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LG전자, 'SKS' 유럽 본격 상륙**

LG전자는 같은 기간 밀라노에서 열리는 주방 가전·가구 박람회 '유로쿠치나(EuroCucina)'에 참가했다. 2024년 대비 약 2배 확대된 840㎡ 규모의 전시관을 꾸렸고, 전시 제품 수도 20% 늘렸다. 올해 LG전자의 방점은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재단장한 초프리미엄

브랜드 'SKS'의 유럽 본격 진출이다. SKS 리브랜딩 1주년을 맞아 비아 만초니 47번지 SKS 밀라노 쇼룸에서는 'Feeding the Future'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I 기반으로 식재료 보관부터 조리까지 음식의 생애 주기를 안내하고, 음식물 낭비 최소화를 주제로 한 테이스팅 경험으로 마무리되는 구성이다.

신제품 'Tracce(트라체)' 캡슐 컬렉션도 이목을 끈다. 이탈리아 디자인 거장 알레산드로 멘디니, 에토레 소트사스, 슈퍼스튜디오의 역사적 그래픽 패턴을 SKS 언더카운터 와인셀러와 컨버터블 냉장고에 적용한 한정 컬렉션이다.

제품 기술력도 강화됐다. 'AI 코어 테크' 기반의 식기세척기에는 디지털 탁도 센서로 세척 3단계를 분석해 물 온도와 세제량을 자동 조절하는 'AI 센스클린' 기능이 탑재됐고, 오븐에는 내부 카메라로 식재료를 인식해 자동요리 메뉴를 추천하는 '고메 AI' 기능이 적용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동국제강그룹, '1사 1병영' 캠페인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에 위문금 3000만원 전달

동국제강그룹은 20일 자매결연 부대인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과 '1사 1병영' 행사를 열고 위문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동국제강그룹은 1984년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후 1995년 교류가 일시 중단됐지만, 지난 2012년 장세욱 동국제강그룹 부회장이 '1사 1병영' 캠페인 형태로 이를 재개하며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도 단순 위문금 전달에서 벗어나 부대 상황에 맞춘 교류 활동으로 확대됐다. 계곡 트래킹과 헬스기구 지원, 워크숍 장소 지원 등이 이뤄졌으며, 위문 규모도 확대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동국제강그룹은 2사단 노도부대가 지난 2021년 제2신속대응사단으로 재창설되고, 회사가 2023년 3개사로 분



'동국제강그룹-제2신속대응사단 1사 1병영 행사 위문금 전달식'에서 (오른쪽부터) 장세욱 동국제강그룹 부회장과 임태호 제2신속대응사단장이 사단 역사관 내 '렉스틸 렌티큘러 월'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국홀딩스

할된 이후에도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행사는 제2신속대응사단 역사관 재개관을 기념해 동국제강그룹이 기부한 '렉스틸 렌티큘러 월' 앞에서 열렸다. 회사는 컬러강판 제조기술을 적용해 보는 각도에 따라 동국제강그룹 로고와 사단 로고가 각각 드러나도록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dhalethale@

## JW이종호재단, 장애 예술인 발굴한다

오는 6월 1일까지 'JW아트어워즈' 첫 참가 수상 'JW기대주상' 신설

JW중외제약의공익재단JW이종호재단은 오는 6월 1일까지 '2026 JW아트어워즈'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2026 JW아트어워즈'에는 만 16세 이상 장애인이 참여 가능하며 1인당 1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한국화, 서양화 등 순수미술 부문에서 지난해 7월 이후 창작한 캔버스 10호 이상~60호 이하의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폼을 통

해 참가신청서와 작품 이미지를 제출하면 된다.

다양한장애 예술인에게 수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본상 수상자(대상~장려상)는 참가가 제한된다.

JW아트어워즈는 올해로 12회를 맞는 국내 기업 주최의 최초 장애인 미술 공모전이다. 특히 올해는 JW아트어워즈를 통해 미술 공모전에 처음 참가한 작가 중 작품성을 인정받은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JW기대주상'을 신설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

## KAI, 협력사 금융·복지 지원 확대

상생협력기금 22억 추가 출연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지난 20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상생업체 경영설명회'를 열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KAI는 금융 지원과 복지 확대를 포함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생산 역량 및 수주 경쟁력 제고를 통해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정익·회전익·무인기·위성 등

전 분야에 걸친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을 제시했다.

KAI는 약 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고가 설비 투자 시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2020년 조성한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기금에 올해 22억원을 추가 출연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력사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도 같은 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 청호나이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공기청정기 '서밋타워'

청호나이스 공기청정기 '서밋타워'(사진)가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21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서밋타워는 청호나이스 시그니처 컬러인 '클라우드 베이지'와 '토포 브라운'을 적용해 다양한 인테리어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했다. 입체감을 강



조한템바보드 디자인은 세련되고 감각적인 공간 연출을 돕고 색상과 밝기 조절이 가능한 무드등은 취향에 맞는 분위기 설정을 지원해 디자인 측면에서 높은 완성도를 갖춘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인사

-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 △자원순환이사 문갑생
-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김은영
- ◆한국관광공사 ◇임명 △민병선 관광산업본부장(상임이사) △김영미 관광AI 혁신본부장(상임이사) ◇승진 및 전보(본부장) △박윤숙 경영혁신본부장

### 부음

- ▲배길순(향년 80세)씨 별세, 배재수(BBS 기자)·재용(방위사업청 중령)·재희(전 간호사)씨 부친상, 박혜윤(남강고 교사)씨 시무상, 윤한준(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씨 장인상 = 20일 오후 8시 36분, 빈소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2일 오전 10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31-787-1500.

# What Makes A Truly Comfortable & Trustworthy Sleep



50년을 지나, 이제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http://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 정치력이 필요한 순간



김희석 칼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한달 넘게 치열한 전쟁을 벌인 후 휴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라고 말했다. 이는 전쟁이 본래 정치가 풀어야 할 갈등을 끝내 정치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비극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이 끝내 대화와 타협에 실패할 때, 그 빈자리를 무력과 폭력이 대신한다. 이런 맥락에서 전쟁의 가장 큰 책임은 결국 정치에 있다. 외교 채널이 있고, 국제기구가 있고, 전화와 화상회의, 실시간 통신망까지 모두 갖춰진 시대에 지도자들이 직접 소통하지 못해 미사일과 폭탄으로 말을 대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런 현상은 국제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시 정치를 정치로 풀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왔다. 여당과 야당은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루기보다 강경 대치에 몰두했고, 그 결과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거리의 분열과 사회적 갈등으로 번졌다. 정당 내부의 갈등조차 스스로 조정하지 못한 채 법원으로 가져가는 일도 흔하다. 판결이 나와도 승복과 수습으로 이어지기보다,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되곤 한다. 정치가 사법으로 넘어가고, 협상이 소송으로 대체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정치력이다. 정치력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충돌을 조정하고 이해를 절충하며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진영 논리에 갇혀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는 자세로는 결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지도자라면 눈앞의 유불리를 넘어 더 큰 공동체의 이익을 봐야 한다. 내 편의 박수보다 국민 전체의 안정을 우선해야 하고, 당장의 승리보다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질서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그런 정치력이 더욱 절실한 시기다. 경제는 세계와 촘촘히 연결돼 있고, 안보와 에너지, 물가와 환율이 한순간에 서로를 흔든다. 여기에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까지 더해지면서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 일자리, 인간관계의 방식마저 빠

르게 바뀌고 있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사람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는 오히려 퇴행한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기계가 정보를 처리하는 시대일수록, 사람은 더 깊이 대화하고 더 성숙하게 합의해야 한다.

오는 6월 3일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이 선거는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치를 결정하는 자리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유권자의 책임이 막중하다. 투표는 불만을 표현하는 가장 평화로운 방식이며, 사람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장치다. 정치를 혐오한다고 해서 정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은 정치인을 외면한 자리는 더 나쁜 정치가 차지할 뿐이다. 유권자들은 누가 더 자극적인 말을 하는지보다, 누가 더 책임 있게 대화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적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줄일 줄 아는 사람, 상대를 모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득할 줄 아는 사람, 자기 편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유통·정책부장 vbkim11@metroseoul.co.kr

# 은행과 인공지능



이지수첩 안승진 (금융부)

은행들이 인공지능(AI) 활용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챗봇, ARS 등 고객 상담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됐던 AI는 대출 심사나 상품 추천까지 그 영역을 확대했다. 은행원이 맡았던 각종 업무들이 AI에게 넘어가면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AI를 마주할 일이 많아졌다.

국내 은행들이 AI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은 비용 효율화 때문이다. 디지털금융의 보급으로 점포 운영의 효율성은 낮아졌고, 금리 인하나 대출 규제 등을 이유로 기존 수익 구조가 흔들리면서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수익성 개선 전략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AI를 소비자 업무에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은행권에서 챗봇, ARS 등에 활용하는 AI는 챗GPT, 제미니AI 등 상용 생성형 AI와 비교해 성능이 뒤쳐진다. 망분리 규제에 따라 기존 상용 모델 도입이 제한적인 만큼 자체 개발 모델을 활용하고 있어서다. 해당 AI 모델들은 앱 기능 연결, 상품 설명 이외의 기능 정도만 제공할 수 있으며, 답변의 정확도도 떨어진다. 고객의 체감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업을 전문적인 서비스업으로 인식한다. 은행원은 고객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고객이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고객은 마주앉은 은행원이 복잡한 절차와 상품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고 믿는다. 고객 요청에 대한 '피드백'이 불충분하며, 때때로 부적절한 답변을 내놓는 AI에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다.

AI는 시행착오를 겪고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성능이 향상된다. 그러나 불편을 겪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은행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불편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미완성 AI'의 도입이 늘어날 수록 은행을 향한 신뢰도 저해될 수밖에 없다. '신뢰의 산업'인 은행업에는 치명적이다.

AI의 도입은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다. 은행의 수익성 개선과 비용 효율화는 소비자의 금융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진다. 은행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윈-윈(Win-Win)'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불편함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은행들은 미완성의 인공지능을 각종 업무에 경쟁적으로 도입하기보다, 소비자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더 힘써야 할 시기다. /asj1231@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2일 (음 3월 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공허로운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60년생 지병만 아니라면 조금씩 차도가 있겠습니다. 72년생 외롭고 서러운 마음이 듭니다. 84년생 미룰 수 있는 여행이라면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49년생 매대는 이루어지기 어렵겠습니다. 61년생 이거 나가야 하는데 너무 지쳐 있습니다. 73년생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85년생 이상형을 찾아 나서지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50년생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되면서 원만하게 풀려 나갑니다. 62년생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74년생 더욱 큰일에 몰두하세요. 86년생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51년생 여행을 하게 되면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63년생 민낫천적인 성격에 술을 자주 마시게 됩니다. 75년생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87년생 신의를 두텁게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52년생 신의를 저버리면 큰 해를 당하는 운입니다. 64년생 어려운 일이 쉽게 풀리게 되는 좋은 시기입니다. 76년생 과음은 피하세요. 88년생 신의를 두텁게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53년생 사방을 험한 산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65년생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77년생 노력한 만큼의 결실은 맺어지겠습니다. 89년생 능력을 심본 발휘해 볼 시기입니다.



54년생 밖으로 나간다면 좋은 친구를 만날 것입니다. 66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겠습니다. 78년생 금전상으로 약간의 손실이 있겠습니다. 90년생 동남방에 귀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5년생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집니다. 67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79년생 작은일에 몰두하면 큰 것을 잃습니다. 91년생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56년생 주변에 잘해주는 이들을 주의하세요. 68년생 밖에 나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80년생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92년생 일이 여의치 않으니 마음에 번민이 많습니다.



57년생 다른 일을 기획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69년생 건강운이 길하지 못합니다. 81년생 소극적인 자세로는 꿈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93년생 하는 일을 다음 기회로 미루어 보도록 하세요.



58년생 바라던 모든 것이 때를 만난 듯 합니다. 70년생 가까운 이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82년생 성공하기 좋은 때입니다. 94년생 주변에서 도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59년생 체력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71년생 개업이나 전업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83년생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를 하세요. 95년생 기회란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 김상회의四季 암도진창, 인생의 파도 넘기

암도진창이라는 병명은 중국 36계 중에서 여덟 번째 전략이다. 겉으로는 잔도를 보수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진창으로 몰래 건너간다는 뜻이다. 초한지에서 유방이 항우를 속이고 한중을 벗어나 천하를 도모할 때 사용한 이 전략은,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여주는 것과, 승부를 결정짓는 실제 움직임을 분리하는 고도의 심리전이다. 이는 단순한 기만술이 아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상황이 무르익을 때까지 내실을 다지는 삶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다. 현대인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내보이는 셀프 마케팅에 익숙하다. SNS 등으로 자기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기 바쁜 시대에 오히려 정면대로 숨기고 감추면서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가 없느냐고 항변하는 이들이 많다.

사주를 들여다보면 대개 기운이 밖으로만 발산되어 정작 알맹이가 차오를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다. 암도진창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은 남들에게 보여줄 잔도를 닦는 데만 모든 힘을 쏟느라 진창을 건널 군사를 키우지 못한 셈이다. 명리에서 인성이 부족하고 식상만 과한 형국이다. 직장인이자면 주어진 업무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미래를 위한 전문 지식을 쌓거나 제2의 인생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창을 건널 군사를 키워놓았을 때, 운의 흐름이 열리는 시기가 오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빛을 발한다. 주변에서 보면 갑자기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항해술이 필요하다. 드러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지혜를 쌓고 힘을 길러야 험한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진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9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02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겨학원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리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리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6	8	9	9	8	2	1	2	
8	2	9	7	2	1	8	9	6
1	9	2	6	2	8	7	8	9
9	2	8	9	8	6	1	2	7
8	1	7	2	8	2	9	6	9
6	9	2	1	7	5	2	8	8
2	7	6	8	9	9	8	2	1
2	8	1	8	6	7	9	9	2
9	8	9	2	1	2	6	7	8

2	1	7		3				
6	5						2	
				4				
			1	7	6	9		
5							8	
4	7	1	9					
3								
9				6	7			
1	3	6	5					

		5	2	7	9		6	
4		3						5
				9				
1	5	4					1	
						2	7	8
	3							
		1						
5				6				1
8	1	4	5	2				

# 공연·관광·숙박까지... 창동, K-팝 흐르는 '문화거점' 된다

서울시, 2.7조 투입 창동일대 개발 2.8만명 규모 '서울아레나' 중심 상업, 숙박, 여가 등 인프라 조성 용적률 등 규제완화로 투자유치



창동 아레나 조감도. /서울시

서울 관광 3000만 시대.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가 365일 K-POP이 흐르는 글로벌 문화중심지이자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집적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문을 여는 2만 8000명 규모 K-POP 성지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주변 문화·예술시설과 특화 상업시설 등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조 7000억원을 투입해 창동 일대를 2027년까지 문화·관광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각종 규제 완화로 'K-엔터타운' 조성을 지원한다.

◆ '서울아레나' 거리 곳곳 공연·이벤트  
서울시는 서울아레나에서 연 100회 이상 3만 명이 찾는 공연을 개최하도록 추진하고, 창동역 광장과 고가 하부 등 곳곳에서는 거리공연과 버스킹이 상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DDP와 '동대문 K-POP 거리' 등 강북지역 문화명소와 연계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개발하고, 서울아레나 개관 시기에 맞춰 서울 대표 계절축제 '스프링페스티벌'과 연계한 행사도 개최한다.

아울러 시는 문화가 산업과 일자리를 이끄는 유도로 한다. K-엔터타운 내 K-

컬처 특화 상업시설을 마련해 방문객의 지역 내 소비를 자연스럽게 늘린다는 복안이다.

창동역 인근에 있는 저이용 부지와 노후 기성 상업지 등에는 용적률 최대 1300%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상업, 관광숙박, 기업 업무공간을 도입한다.

문화·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대한 유치와 집중 육성도 펼친다. 서울아레나 내 조성되는 대중음악지원시설은 공공이 직접 운영, 중소기업 등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의 음악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지원한다.

◆ 창동역~중랑천 문화예술 테마거리  
공연 관람객이 숙박, 여가, 미식 등 여행의 모든 일정을 창동에서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한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NH복합상업시설,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지원시설 용지 개발 시 숙박시설 700실 확충해 동북권의 부족한 관광인프라 틈새를 메울 계획이다.

또 이동이 하나의 관광코스가 되도록 창동역에서 서울아레나, 중랑천을 잇는 '문화예술 테마거리'를 비롯한 다양한 투어 루트를 개발하고,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전면에는 K-POP 광장을 조성한다. 창동역 남측에 조성된 골목상권은 'K푸드 특화거리'로 변신, 공연·먹거리·휴식이 어우러진 관광코스를 완성한다. 한편 서울시는 'K-엔터타운, 창동'의

위상과 문화산업·지역경제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동 일대를 '창동 문화·관광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다. 2027년 지정이 목표다.

자금유자, 세제지원,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도 지정하여 도로 등 공공 공간의 점용과 옥외광고, 간판 규제는 완화해 지역 내 상업 및 소비활동을 늘린다.

'K-엔터타운, 창동' 조성에는 총 2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까지 민간 및 공공자본이 총 2조가 투입됐고, 올해부터 총 7000억원의 예산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창동을 비롯한 상계 일대는 더 이상 '외곽'이 아닌 서울 동북권의 문화예술 거점이자, 외국인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여는 중심공간으로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탄탄한 경제코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학교회계직 공무원 전환 찬반논란

### “형평성 어긋” vs “신규자리 빼앗는 것 아냐”

전현희 의원 '특별법안'에 논쟁 확산 반대측 "공직인사체계 혼란 우려" 찬성측 "기존인력 신분 정리일 뿐"

중·고등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시험 없이 공무원이 되는 특혜"라는 반발도 제기되지만, 장기간 같은 업무를 해 온 기존 인력의 지위를 바로 잡는 제도 개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현희 의원은 최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별도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공립 중·고등

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개경쟁시험이 아닌 별도 절차를 통해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7년 초등학교 의무교육 시행 당시 초등학교 육성회 직원은 공무원으로 전환된 반면, 중·고등학교 인력은 제외되면서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고도 신분이 갈린 구조가 장기간 유지돼 왔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대 측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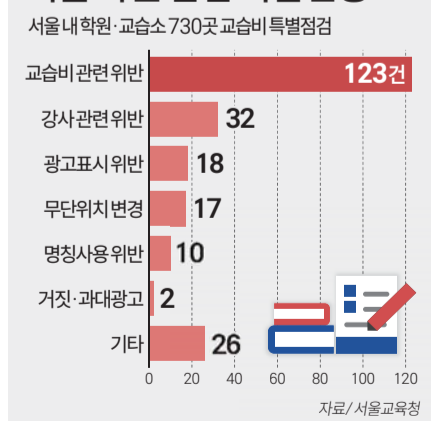
공직 인사체계 혼란 우려 ▲수험생과 현직 공무원의 반발 여론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한다.

이에 대해 법안 찬성 측은 이번 사안을 신규 채용 문제가 아니라 기존 인력의 신분을 정리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공개경쟁채용으로 선발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 정원과 별도로 다루지는 만큼, 공채 규모 축소나 신규 수험생 기회 박탈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 호봉제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미 공무원 정원 안에 포함된 인력의 법적 신분을 바꾸는 것으로, 이를 일률적인 잣대로만 보는 것이 공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 서울 학원 '꼼수 인상' 등 교습비 위반 적발

### 서울 학원 점검 적발현황



서울교육청, 학원·교습소 특별점검 730개원 점검, 228건 위반사항 적발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한 교습비 특별점검에서 전체 점검 대상의 약 23%에서 위반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학원·교습소 교습비 등 특별점검을 마무리한 결과, 730개원(소)을 점검해 167개원(소)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을 투입해 2월부터 4월까지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세부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228건 중 교습비 관련 위반이 12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교습비 관련 주요 위반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등 표시 위반 42건 ▲교습비 외 비용 징수 19건 ▲교습비 초과징수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현진 기자

## '컬처라운지 경기, 장' 이틀간 1000명 방문

경기도-경기관광공사

18일 문화·관광 복합문화공간 개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한데 모은 복합문화공간 '컬처라운지 경기, 장(場)'이 지난 18일 개관 이후 높은 관심을 끌며 성공적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컬처라운지 경기, 장'은 개관 첫 주말 이틀 동안 약 1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프로그램 사전예약이 오픈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성과는 여행·전시·공연·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과, 경기도를 비롯해 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한국도자재단·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아트센터·DMZ국제다큐영화제 등 6개 공공기관

이 협업한 통합 운영이 시너지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맞춤형 여행 체험 프로그램 '로컬레이더(Local Radar)'가 핵심 콘텐츠로 큰 인기를 끌었다. '로컬레이더'는 방문객이 현장에서 여행 성향을 진단받고 개인 취향에 맞는 경기도 여행지를 추천받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또 규관악기 연주 그룹 '코리아나츠'의 봄맞이 공연 'Music Road'은 관람객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현장분위기를 끌어올렸고, '경기관광 사진전'에서는 2024-2025년 공모전 수상작 약 30점을 선보이며 경기도 관광의 매력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도자 공예 체험, 문화 굿즈 판매 등 다양한 상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경기·관매의 기자 dykimi@



▲“美부통령 21일 파키스탄으로 출발...모즈타바 추가 협상 승인” /사진 뉴시스  
▲美·쿠바, 차관급 회담...에너지 봉쇄 갈등 속 대화 재개

▲이란, 美에 나포된 화물선 투스카호 즉각 석방 촉구  
▲이란, 전국 공항 재개방 시작...학자 등에 '제한적 인터넷' 허용

▲日 육상자위대 훈련 중 전차 포탄 폭발...대원 3명 사망  
▲유엔 “트럼프 이란戰 2주 비용으로 8700만명 구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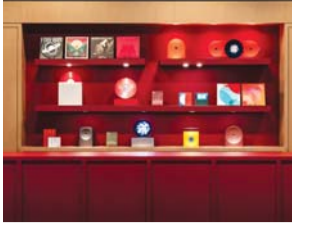


글로벌 힙합 불닭  
삼양식품  
창사이래 최대실적  
L1



Life

삼성·LG  
밀라노 디자인워크  
동시 출격  
L4



# “폐기물 처리 넘어 자원순환으로... 지역의 ‘가치공간’ 만들 것”

## CEO 와칭

### 송병역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송병역 사장(사진)은 다소 독특한 길을 걸어 왔다. 과거 수도권 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발표됐을 때, 지역 내 환경권을 지키고자 주민대표로서 최전선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후 약 30년이 지난 시점인 2023년 ‘반대자’가 아닌 ‘책임자’로 공사 사장에 부임했다.

송 사장은 누구보다 주민의 고충과 바람을 잘 안다고 자부한다. 취임 후 지역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2년 첫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이후 수도권매립지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진화를 거듭했다. 현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손꼽히는 우수한 폐기물 처리시설이자, 자원순환을 통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사는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의 반입부터 시설 운영에 이르는 주요 결정 과정에 주민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송 사장 취임 이후 마을별 순회간담회를 정례하는 등 주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있다.

#### 매립지 반대 선봉장에서 책임자로 지역주민 고충·바람 가장 잘 이해해 폐기물 반입부터 운영까지 주민참여

#### 올해부터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 위기를 기회 삼아 ‘녹색대전환’ 추진 자원순환 확대, 에너지생산 거점으로

#### ◆직매립금지, ‘녹색대전환’ 기회

올해부터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됐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하지만 협력업체 근로자를 비롯해 현장에서 일하는 지역주민의 고용 불안 문제가 대두됐다. 반입수수료 감소에 따른 주민지원금 및 사후관리 자원 축소라는 현실적인 과제도 생겨났다.

송 사장은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수도권매립지를 녹색대전환의 중심지로 재편할 계기로 보고 있다. 매립지가 단순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넘어 재생에너지 생산과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 과정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돼야 한다는 구상이다.

공사는 이미 지난해 기존 반입폐기물의 46% (48만9000톤)를 자원화한 뒤 에너지로 생산하거나 고품연료로 판매하는 등 수준 높은 녹색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제1매립장부터 제3-1매립장까지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



해 전기를 생산하는 역량 역시 공사의 중요 자산이다.

이 같은 역량을 모아, 수도권 반입폐기물을 최대한 자원순환과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운영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 ◆온실가스감축 분야 ‘국가핵심기관’

공사의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여정은 20년쯤 전 시작됐다. 2007년 공사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통해 UN기후변화협약(UNFCCC)에 CDM(정정개발제도)사업을 등록했다.

이는 국내 폐기물분야 최초 사례이자, 당시 전 세계 동종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주목받았다. 특히 선진국의 기술이나 자본지원 없이 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0년간 확보한 총 882만 톤 규모의 탄소배출권 에 대해 송사장은 “500MW급 석탄 화력발전소 2.5기가 1년간 가동을 중단해야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양”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내 각 지자체 매립장에 적용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방

안을 구체화하며, 실무적인 방법론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시장에서의 활약도 두드러진다. 2006년 파키스탄 진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50건에 이르는 해외사업을 수행해 왔다. 특히, 2023년 정부로부터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폐기물 자원화 및 매립가스 에너지화 사업을 더욱 본격화하고 있다.

몽골(NEDS 매립장)과 볼리비아(산미구엘 매립장)에서는 매립가스 포집·활용 본사업이 진행 중이다. 가나,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 8개국을 대상으로 매립가스 및 폐수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발전사업 타당성 조사도 추진 중에 있다. 송 사장은 “해외에서 확보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향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장노하우를 국가표준으로”

공사의 전문성은 객관적인 지표로 입증되고 있다. 공사가 직접 운영 중인 ‘광역 읍폐수 바이

오가스화 시설’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며, 국내 최고 수준의 공정 관리 능력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며, 국가 차원의 시설 적정성을 평가하는 공신력까지 갖추게 됐다.

전국 매립시설 기술 지원, 환경 신기술 검증, 폐자원 에너지화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등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가적 사무를 확대 수행하고 있다. 송 사장은 “이러한 노력은 국내 폐기물 처리 기술의 표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제 공사는 개별 현장 관리 수준을 탈피해, 대한민국 자원순환 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심점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력과 국가적 공신력이 인천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의 환경 경쟁력을 견인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송 사장은 “공사가 국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특정 지역의 경계를 벗어나 전문적인 기술지원과 검증체계를 보다 폭넓고 균형있게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 독자적 기술로 탄소배출권 대량 확보 폐기물 자원화 등 해외사업 50여건 수행 매립 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 경쟁력 확보

#### 제2매립장, 새로운 가치창출 전환 준비 사후관리 모델 구축... 지역상생 실현

#### ◆‘시민 위한 가치공간’ 제2매립장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지만, 소각되고 남은 재 등 불연성위주의 폐기물들은 여전히 매립을 통한 최종처리가 불가피하다. 공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반입량과 폐기물 성상에 맞춰 매립방식 및 인력·장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운영을 개선하고 균열된 복토면을 신속히 복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악취와 비산먼지 등 주요 환경지표를 법적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며 청정한 매립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약 8000만 톤의 폐기물이 매립된 제2매립장은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축구장 215개 규모의 부지인 매립지를 안정화하고,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중인 최종복토공사는 2028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송 사장은 “매립지의 향후 활용 방향은 지역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사가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지역사회의 인내와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 가는 사후관리 모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metro



송병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매립시설 현장 점검에 나선 송병역 사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중심타자 공백이 가져온 각성...한화 반등 속 묘해진 ‘노시환 존재감’  
▲오타니, 추신수의 아시아 기록과 어깨 나란히... 52경기 연속 출루 달성 /사진 뉴스스

▲울산 말경, K리그1 8R MVP...K리그2는 부산 사비에르  
▲NBA ‘신인류’ 웹반야마, 올해의 수비수 선정... 최초 만장일치·역대 최연소

▲‘디펜딩 챔피언’ 알아흘리, 日 고베 누르고 AC LE 결승행  
▲‘LA 챔피언십 준우승’ 김세영, 세계랭킹 9위... 3주 만에 한 자릿수 진입